

나에게 신념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준 백범일지

동산중학교 김은찬

백범일지에는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 일제 강점기 시대와 대한
민국 임시정부 시절, 해방을 거쳐 조국에 돌아와 활동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의 삶 속에는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나라의 모습
이 보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쳤으나 잊혀져 가는 대한민국의 영
웅들도 보인다. 결국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의 자서전이기만 한 것이 아니
라 우리나라 한 시대의 기록, 그리고 우리들은 현재를 성찰해볼 수 있는 귀
중하고 고귀한 자료이다.

김구는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으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
평생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셨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모인
명성 황후를 해치자,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인을 죽여서 감옥에 가기도
하셨고,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해 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쓰기도 하셨다. 일
본이 조선을 강점하자 중국에서 임시 정부를 만든 것도 김구와 그의 동지들
이다. 김구는 임시 정부 일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거사를 이끌기도 하셨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지금의 우리는 그때의 일을 상상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우리는 일제에게 고통을 받은 기억도 없고 힘든 시절을 보낸 경
험도 없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일제의
수탈과 민족 정신 훼손 등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수
많은 일제의 잘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백범 선생님은 교육을 중시했으며,
또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이렇게 교육을 평가하셨다. 교육에 관해
서는 국민성을 보존하는 것이나 수정하고 향상하는 것이 문화와 교육이 그
힘이요, 산업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민주주
의 정치는 좋은 교육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
되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모습에서 김
구 선생님이 대단하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에서는 많은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었지만 굳이 하나만 꼽으라면 당
연히 나는 시계에 대한 장면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위해서 떠날 때 이제 저에게는 이 시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면서 김
구 선생님과 시계를 바꾸던 장면 그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리며 날
부르고 있다. 시계는 바꿀 수 있었지만 시계 속에 시간은 바꿀 수 없었을까.

시간 앞에 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국들을 지우기에 바빴다. 눈물이 흠바닥을 적시고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될 때까지 그 짧은 찰나에 그 일들이 벌어져 버렸을 것이다. 차는 무정하게 떠나고 그렇게 헤어짐은 자연스럽게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차는 시간을 연료로 달리고 휘발된 시간은 사건의 잔흔처럼 땅바닥에서 가스랑 거리는 숨을 쉬고 있다. 아마도 그렇게 점점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그렇게 오지 않는 떠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읽고 나니 다시금 우리가 진정하게 소중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보통 물질적인 이득만을 소원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것, 사랑과 믿음 그 밖에 우정, 평등, 자유 등등.

특히 자유가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온다고 생각하셨다. 왜냐하면 좋은 민주주의 정치는 양질의 교육과 문화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한 아름다운 나라는 아마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나라인 것 같다.

우리가 살면서 놓치게 되는 많은 순간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우리들은 앞만 보고 달리다 옆에 있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달린다고 하면 툽니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차바퀴에 해당하는 수많은 우리의 소중함이 도로에서 무참히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김구 선생님의 소원처럼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내가 무슨 사람인지 잊기 마련이란 걸 백범일지를 통해 깨달아 버렸다. 기억의 흔적들이 도로 위에서 외로운 허밍을 할 때 나는 그만 눈을 감아 버린다.

또 하나 김구 선생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민족’이다. 그는 한 사람이 만든 생각은 한계가 있으며 반면에 민족은 늘 있고 늘 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민족의 철학을 찾고, 세우고, 주장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동포들이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읽고 나는 민족의 철학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전에 나의 철학은 과연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사소한 것도 나의 철학이 없는 채 고민을 하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나의 신념과 철학은 무엇인지 앞으로 여러 경험과 공부를 통해 정립하고 싶어졌다.

예전에 TV에서 우리 독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어릴 때 반 아이들과 윤봉길 의사가 던지셨던 폭탄이 물병 폭탄이냐 도시락 폭탄이냐고 대화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언제부턴가 지금, 우리의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전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우리는 어릴 적 추억을 잊어가는 것처럼 지금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다. 나는 이 말이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문장이란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이 원하셨던 우리나라를 짚고 넘어가고 싶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라셨다. 나도 김구 선생님처럼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백범일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끝으로 독립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불어 백범일지를 나의 신념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보고 싶다.

김구 선생님의 희망을 통일로

동산중학교 이선우

나는 김구 선생님을 잘 알지 못했다. 독립운동가분들을 제대로 알 기회도 없었을뿐더러 제대로 알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범일지”를 읽고서 독립운동가분들을 제대로 알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현재의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것이 백범 김구를 비롯한 의사, 열사분들 덕분이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역사에 만약이란 단어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독립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의사, 열사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애국계몽운동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사와 열사분들 사이에서도 김구 선생님의 인생은 하나의 드라마이자 소설이었다. 당시에 엄청나게 탄압받고 힘들었던 조선인들 사이에서 ‘김구’라는 큰 무게를 짊어진 이름은 희망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그에게도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약혼녀와 사별하고 감옥에도 두세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는 가시밭길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가시밭길까지 이겨내고 꽃꽂이 걸어가며 조국의 독립과 발전까지 챙긴 모습은 김구라는 이름의 무게와 가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김구 선생은 친일을 하며 편하게 살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김구 선생은 애국계몽운동을 했었다. 그럼 김구 선생은 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일까? 책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김구가 고능선 선생께 이런 질문을 한다. “망해 가는 것(그 당시의 대한제국)을 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자 고능선 선생은 “옳은 질문이네. 기왕 망할 나라라 하더라도 망하지 않도록 힘써보는 것이 백성된 도리지.” 라고 말한다. 나는 김구가 이 일 때문에 백성된 도리로서 독립운동을 꾸준히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그렇기에 이재명 의사를 도와주었고, 중국으로 망명한 후에도 상해 임시정부에 들어가 경무국장의 임무를 하며 우리가 흔히 아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도와주기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두 의거 이후, 일제의 감시가 더욱 심해져 임시정부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행색이 되었고, 임시정부는 개편되고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는 일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범 김구께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다. 만약 통일된 조국을 보고 돌아가셨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말을 하셨을까?

김구 선생의 소원은 왜 대한독립이었을까?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시는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시작해서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밖에 없다”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김구라는 사람이 그 당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기 힘든 말이었는지 알기에 더욱 빛나고 가치가 있다.

조국의 독립은 김구 선생께 어떤 의미였을까? 김구 선생은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왔다. 언제나 죽기 살기로 의거에 임했다. 그런 김구 선생께 있어선 자신이 가진 “한평생의 목표”였다. 김구 선생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조국이 일제에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 가운데 자신은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가진 임무에 전력을 다하여 결국 조국 독립이란 거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둡다. 저출산과 갈라져가는 성별, 그 가운데서도 “분단된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어둡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쉽게 얻어낸 것이 아니다. 김구를 비롯한 많은 의사, 열사분들이 피, 땀을 흘려가며 이뤄낸 것이기에 이 상황을 타개해야만 한다. 김구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통일”을 대한민국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통일을 향한 첫걸음은 우리가 일궈나가야 한다. 그들이 조국과 후손들을 위해 목숨 바쳐 일제와 싸웠던 마음가짐처럼 우리 또한 조국과 후손들을 위해 죽을 각오로 통일에 임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백범일지” 를 읽고

동산중학교 황지후

이 책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남기는 유서와도 같은 자서전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어린 시절, 청년, 중년, 노년의 생활과 그의 업적이 쓰여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에 가장 선봉에 계셨던 분이셨던 만큼 이책을 읽음으로써 독립에의 과정과 그 어려움, 김구 선생님과 독립 투사들의 통탄함, 억울함 등 당시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알 수 있었다.

초반엔 김구 선생님이 개구쟁이 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항상 동그란 안경을 쓴 근엄한 사진만 봤었는데, 그런 선생님의 어린시절이 개구쟁이 였던 사실에 조금 놀랐다. 하지만, 아버지께 우리 집 남자들이 갓을 왜 쓰지 못하는지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양반이 되려고 공부를 하고, 또한 과거 시험장에서 부정부패한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을 포기하는 모습에서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과감한 결단력을 엿볼 수 있었다. 나는 열두 살 때 이런 목표 의식이 있었나? 그리고 이런 의지가 있었던가? 조용히 뒤돌아보게 만들었다.

청년이 된 김구 선생님은 빈부귀천으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말에 감동하여 동학에 입교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가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애쓰게 되는 초석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년 안중근과의 인연도 생긴다.

얼마전에 뮤지컬 영웅을 보았는데,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이 책에서도 보아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며 세계의 기자들에게 ‘누가 죄인인가’ 를 외치던 안중근의 모습이 겹쳐 보이며, 안중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도 옥살이를 하고 고문을 받았을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을미사변, 을사늑약, 한일병합조약을 거치며 우리나라의 주권이 점차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상해임시정부 수립 소식을 들은 김구 선생님은 상해로 넘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김구 선생님은 안창호, 이봉창, 윤봉길도 만나게 된다. 나는 각기 위인전에서 읽어보았던 독립투사 세 명이 이렇게 김구 선생님과 연결되는 것을 보니 뭔가 신기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일왕을 죽이려다 실패한 이봉창 의사도 도시락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도 생각보

다 너무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결심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굵직한 사건들의 뒤에는 항상 그들의 아버지와 같았던 김구 선생님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았다.

왜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후보의 사람됨을 검증하려 하고 공약을 살피는지 알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올곧은 성품의 지도자, 국민과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면, 적어도 국민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걱정을 덜 하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심되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1945년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게 되는데, 나는 독립의 과정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다. 자주독립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것을 하지 못해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은 알지 못했다. 만약 일본이 미국에 의해 몰락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본을 이 땅에서 내몰았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 대한민국이 둘로 나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강대국이 되어있을까? 이런 행복한 상상도 해보았다.

이 책의 말미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부분이 나온다. 이 부분을 읽어 내려가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구절이다. 일제에 탄압 당하고 먹지 못하며 산 세월이 35년인데, 이에 무력이나 돈으로 복수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문화의 힘을 강조하다니 그의 평화로운 심성과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미국의 영화나 일본의 만화에 밀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K-POP, K-culture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김구 선생님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자주독립을 하지 못해 눈물 흘리시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은 풀리셨을까?

부디 수많은 독립 투사들과 김구 선생님의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보답 받으셨기를 바란다.

노력과 인의는 배신하지 않는다

동산중학교 윤수환

[백범일지]는 보물 제 1245호로 지정된 백범 김구의 친필 자서전이다. 옛날 사람의 일기라는 생각이 들어 처음엔 그냥 지루할 것만 같았다. 또 이번에 학교에서 나눠주어 읽은 [청소년을 위한 백범일지]가 한 권이라 원본도 한 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읽기 두려울 만큼의 따분함은 나의 쓸모없는 걱정이었다. [백범일지]는 나와 관계없는 먼 옛날 사람의 훈계 같은 일기라기보다는 “하필이면” 이 몇 번이 반복되는지 셀 수 없는 놀이기구 같은 삶을 살았던 김구 선생님의 인생을 통해 당시 시대를 잠시 살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게하는 책이었다. 책을 덮을 때는 순식간에 끝난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철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 김구는 일찍 성숙해져 공부에 임해 과거장에 갔으나 쓰레기장 같은 모습에 과거를 포기한다. 얼마 후 동학에 입도하고 동학 운동에도 참여했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적이었던 안 진사네로 피신한다. 일제 강점이 시작되자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독립 후에도 반탁 운동과 남북이 갈라지지 않도록 힘쓰다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 인의 ” 는 사람을 뜻하는 “인” 과 옳음을 뜻하는 “의” 가 합쳐져 사람이라면 해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김구가 안 진사네로 피신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인의 덕분이다. 동학농민운동 당시엔 적이었으나 서로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하고 편지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기 때문이다. 이는 김구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에서도 서술하는 인의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일화다. 인자무적은 어진 사람은 널리 사람을 사랑하여 적이 없다는 뜻으로 김구를 연상케 한다.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시절 친구와 싸웠던 적이 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상대편을 들어 속상했지만, 나중에는 그 친구가 서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어 금방 화해하게 됐다. 처음의 배신감은 오히려 고마움으로 바뀌면서 친구임에도 멋지다는 생각을 했었다. 김구 선생님의 강조하는 인의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구는 어릴 적에 사돈에게 가기 위해 갓을 쓰고 집을 나선 할아버지가 진사가 셋인 집의 양반들에게 발각되어 갓을 빼앗기고 다시는 못쓰게 됐다는 이야기를 사촌에게 듣게 된다. 이후 양반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진사가 되려면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공부에 임하게 된다. 공부의 시작은 부당함에 대한 반항심이었지만, 그 공부는 자주독립을 외치고 백성들

의 계몽에 앞장서며, 애국지사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김구 선생님이 되도록 하였다. 가장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할 청소년 시절 그 욕구와 충동을 잘 조절해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이다.

나도 역사에 이름 남기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고 다양한 언어를 배워서 갈 수 있는 모든 나라를 가보고 큰 세상에서 배운 것들로 멋진 일을 해내고 싶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그만큼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김구 선생님처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못 할 것 없으니 욕구와 충동을 잘 조절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김구는 일생의 7할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쳤다. 또한 독립이 되고서도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다. 결국에는 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암살되셨지만, 우리는 김구 선생님의 업적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현재와 같이 높은 위상의 한국에 살게 해주신 분 중 한 명이기에 때문이다. 김구 선생님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한분 한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는 오늘날의 인의라고 생각한다. [백범일지]를 통해 김구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얻은 여러 깨달음을 후대에 알리고자 하셨다. 사람 된 도리를 다하며, 꾸준히 배우고자 노력하는 선생님의 삶을 통한 가르침을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동산중학교
정시율

백범일지의 ‘백범’이 김구 선생님의 ‘호’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러면 백범은 ‘무슨 뜻이지?’, ‘호랑이라는 뜻인가?’라는 생각으로 찾아보기로 하고 그렇게 처음 백범 김구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았다. 그런데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뜻의 ‘백범’을 알고 조금은 숙연해지는 마음이 들었는데 잠깐 소개해보고자 한다. 한자로는 ‘白凡’인 ‘백’은 천대받으며 살아왔던 신분인 백정(白丁)에서 따온 것이며 ‘범’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의 범부(凡夫)에서 따온 것으로 ‘가장 낮고 가장 평범한 한 명의 사람’이라는 의미다. 즉 백범 김구 선생님은 자신의 호를 마음에 품고 항상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신념이자 의지였을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크게 백범의 어린시절, 청년기, 임시정부 문지기, 한인 애국단기, 광복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어린시절’이다. 황해도 백운방 텃골에서 외아들로 태어난 백범 김구의 어린시절 이름은 창암이었다. 어릴 때는 아버지 손가락을 부러뜨려 엿을 사먹는 등 개구쟁이 행동을 많이해 부모님께 자주 혼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분의 한계를 느끼고 양반이 되기 위해 과거시험을 준비한다. 하지만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과거장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백범은 서당 공부를 그만두고 관상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신의 관상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 자기의 얼굴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나쁜 것만 있어서 한 말이 “얼굴이 좋음이 몸 좋은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결국 관상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 먹은 백범은 빈부와 귀천을 따지지 않는 동학에 입도하게 된다.

두 번째 ‘청년기’이다. 동학 입도 후 창수로 이름을 바꾼 백범은 ‘아기 접주’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동학에서 맹활약 하는데, 선봉장으로서 나섰던 해주성 공격이 실패로 끝나면서 청계동의 안진사(안중근의 아버지)를 찾아가 몸을 피한다. 이때 유학자 고능선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된다. 그러던 중 치하

포에서 만난 일본인 육군중위 ‘쓰치다’ 를 살해하게 되고 사형을 선고받지만 사형직전 고종의 전화로 형집행이 정지되며 목숨을 건진다, 2년뒤 탈옥한 백범은 마곡사에서 중이되어 지내다가 이듬해 고향으로 돌아와 백범의 구명운동을 벌였던 김주경을 찾아 나서면서 이때 만난 동지들에 의해 이름을 김구로 고친다.

세 번째 ‘임시정부 문지기’ 이다. 36세에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15년 판결을 받았던 백범은 호를 백범이라 짓고 이름의 ‘구’ 자도 ‘아홉 구’ 자로 바꾼다. 인천감옥에서 강제노역을 하며 지내던 백범은 44세 되던 해에 상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원하였으나 경무국장에 임명되고 47세에는 임시정부 내무총장, 51세에는 임시정부 국무령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아내가 폐병으로 사망하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자 홀로 상해에 남아 오직 독립운동에만 전념한다.

네 번째 ‘한인 애국단기’ 이다. 임시정부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갈리고 극심한 자금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백범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한인 애국단’ 을 창단한다. 이봉창 의사의 일왕 저격의 의거,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를 일으키며 우리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동포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제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에 선생님 말씀에 따라 6만원을 주고 산 것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이지 않습니까? 제계는 한 시간밖에 소용이 없는 물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거액의 현상금이 붙은 백범은 상해에서 탈출해 신분을 숨긴 채 지내고 임시정부는 계속 자리를 옮기게 된다. 65세가 되던 1940년에는 백범이 임시정부의 주석이 된다.

다섯 번째 ‘광복기’ 이다. 미군과 연계하여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 광복군이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런 일본의 항복 소식이 들려온다. 백범은 이 소식에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해야만 훗날 우리의 목소리대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백범의 걱정대로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임시정부 요원들은 결국 정부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후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나 남북협상을 진행하는 등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74세 되던 해에 경교장에서 육군소위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생을 마감한다.

이렇듯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 안에는 한 가지로 요약된다. 그것은 나의 소원-백범 김구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나라사랑’ 애국심이라는 것이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김구 선생님의 어린시절 남다른 시각에서 이미 큰 세상을 가슴에 품은 듯하다. 성경에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라는 구절이 있다. 어쩌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마음에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독립’에 있었기에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줄 용기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나라를 위해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 목숨을 내던질 만큼의 용기란 내게는 없지만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듯이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백범일지를 읽고

동산중학교 박서호

김구 선생님을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으로 많이 접해봐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인 ‘백범일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일지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마침 학교에서 백범일지를 나눠줘서 읽어봤다. 책을 읽기 전엔 단순히 김구 선생님의 생애를 담은 그런 일지라 생각했지만, 막상 읽고 나니 ‘김구 선생님은 어떻게 동학에서 그렇게 많은 신도를 모았을까?’ 라던가 ‘만약 김구 선생님이 독립 후 남조선 국민 대표 민주의원 총리역을 맡지 않고 북의 대표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와 같은 생각들이 들며 책의 내용이 더 재미있어지고 내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았다.

우선 김구 선생님께서 동학에 입도 했을 때가 인상 깊었다. 선생님께선 포동이라는 동네에 사는 오응선이라는 사람이 동학에 들어갔는데, 방문도 여닫지 않고 드나들며 공중으로 걸어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동학에 관심이 생겨 입단하셨다. 김구 선생님은 동학에 입단한 후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이도 어린데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렸다고 하여 ‘아기 접주’라는 별명을 얻게 되셨다. 이제 겨우 18살 되신 김구 선생님이 동학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신도 수천 명의 신뢰와 믿음을 받는 접주가 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김구 선생님은 앞장서서 무리를 대표하는 우두머리의 자질이 어려서부터 있고, 또 떡잎부터 남다르셨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1910년 8월 22일, 을사오적(박제순, 이완용,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이 을사늑약을 강제로 맺으며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됐다. 그 이후로 김구 선생님께서는 각각 안중근 의사의 의거와 연좌되었다고 해 수용되고, 또 1911년 안악사건의 공범자로 체포되어 2번을 투옥, 그전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치하포에서 일본인 육군 중위 스치다를 살해 응징한 것까지 합치면 무려 3번의 투옥과 고문을 받으셨다. 김구 선생님은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실제로도 임시정부 요직, 통일을 위해 위험한 북행을 하는 등의 업적을 세우셨다. 김구 선생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기에 모진 고문과 힘든 투옥 생활을 버티실 수 있었던 것 같다. 만약 김구 선생님이나 다른 독립운동가분들이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1912년,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이후 처음으로 김구 선생님을 포함한 국내

애국자들을 잡아 감옥에 수용하였는데, 그중 김구 선생님은 며칠 후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셨다.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 유완무의 권유로 개명한 김구라는 이름 중 거북 구(龜) 자를 아홉 구(九)로 개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왜놈의 호적에서 벗어나자는 김구 선생님의 뜻 때문이었다. 나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왜에게 대항하며, 오직 나라를 위하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이름까지 선뜻 바꾼 김구 선생님이 존경스러웠다.

김구 선생님이 중국 상해에서 생활하던 시절, 상해에 임시정부가 조직되자 김구 선생님께서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 총장인 안창호 선생에게 문지기를 시켜달라고 청하신 것도 기억에 남았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은 뜻밖에도 김구 선생님께 경무국장 임명장을 주며 이 직책을 맡으라고 권하셨다. 그러나 김구 선생님은 한사코 고사하셨지만, 안창호 선생이 강권해 결국엔 경무국장이 되셨다. 김구 선생님은 자신이 순사의 자격에도 못 미쳐 경무국장의 일을 잘 못하리라 생각하셔서 처음에 경무국장 자리를 거절하신 것 같고 또 그럴 바엔 조국의 독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문지기를 하고 싶다고 청하셨던 것 같다. 실제로, 김구 선생님은 당시 김이언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저항할 의병을 일으키려고 계획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의병부대 활동을 하는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하는 활발한 독립운동가셨다. 나는 정말 김구 선생님께서 정말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시려는 자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 후 7년 뒤, 김구 선생님께서 경무국장의 직무를 맡고 계실 때, 의정원 의장 이동녕 선생이 김구 선생님께 국무령 자리를 맡으라 추천했지만, 김구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내각을 꾸리고 또 나 같은 시골 상놈이 국가의 원수가 되면 나라의 체면이 살겠느냐며 굳이 사양하셨었다. 그런 김구 선생님의 행동은 자신의 명예보다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에는 김구 선생님이 국무령에 취임하시고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하는 책임감으로, 국무령의 직책을 잘 수행하셨다. 이 때문에 정말 김구 선생님은 자신이 맡은 일은 잘 수행해 내는,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라 느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이 발자국은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라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蹟 遂作後人程) 이 시는 시인이었던 서산대사의 시로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이다. 또한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글이다. 이 글 안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고 무엇보다 내가 생각하는 친절하고 앞장서는 김구 선생님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구 선생님은 이 시를

조국 분단을 막고 통일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강행하셨던 남북 연석회의를 전후하여 자주 쓰시던 글이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읽은 후 ‘지난 역사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분이 있으셨는데, 만약 지금의 나는 같은 상황이 온다면 선뜻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보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쉽게 나서기가 힘든 일을 오로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힘든 노릇이어서 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나와 달리 선뜻 독립운동한 그분들이 존경스러웠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책을 보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 바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구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과 신민회라는 정치적 비밀결사의 결성 등 이 책을 통해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역사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우울하고 어두운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모든 독립운동가 덕분에 나는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일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뒷걸음질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이번에 백범일지를 읽은 것을 계기로 김구 선생님이 꿈꾸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백범일지 독후감

1214 배정민

우리 학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백범일지’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나눠줬습니다. 평소에 한국사, 세계사에 관심이 많아 김구 선생님의 대해서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김구 선생님의 대한 책이어서 열심히 읽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김구 선생님의 대해서 더 궁금해 더 자료를 찾아보고, 더 조사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TV나 유튜브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만 봐서 “김구 선생님은 그냥 독립운동가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는 김구 선생님께서 대단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읽다보니 궁금한 게 2가지 생겼는데 하나는 왜 호가 백범인지, 또 다른 하나는 이름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첫 번째 이름, 즉 태어났을 때 이름은 “김창암”이었습니다. 김창암 시절의 김구 선생님은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집안은 많이 가난했지만, 어머니의 교육 덕분에 김구 선생님은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대한 열정은 엄청 컸습니다. 저였으면 그 나이엔 공부보단 친구들과 놀 생각밖에 없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마음가짐의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부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때 배운 한학은 김구 선생님의 인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랫동안 과거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장에 갔지만 시험장이 너무 엉망이어서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당 공부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유로 풍수와 관상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수와 관상 공부를 한 결과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볼 때나 지리적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두 번째 이름은 “김창수”였습니다. 1893년 18살에 동학에 입교하면서 김창수로 개명했습니다. 동학은 19세기 중엽에 탐관오리의 수탈과 외세의 침입에 저항하여 세상과 백성을 구제하려는 뜻으로 창시한 종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도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절엔 동학 농민 운동과 의병부대 활동, 치하포 사건, 다양한 항일 운동에 참여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동학 농민 운동은 농민들이 나쁜 정치를 견디지 못해 일어났습니다. 전봉준이 이끈 농민들은 조병갑을 몰아내기 위해 관아를 점령했지만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님은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많은 항쟁에 동참하였습니다. 저였다면 동학 농민 하나만 하는 것도 무서워서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한번 패배하고 계속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의병부대 활동은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 의병부대 활동을 알아보려고 청나라까지 가신게 정말 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치하포 사건은 을미사변 이후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약재류를 파는 일본인 상인을 치하포의 주막에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살해했다는 동기와 자신의 거주지와 성명을 밝힌 포고문을 쓰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결국 김구 선생님은 체포를 당해 사형 판단을 선고 받았지만 고종이 상주 안건을 제시하지 않아서 사형 판결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만약 보복했다면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거나 숨어지냈을 텐데 당당히 거주지와 성명을 밝힌 것이 용기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김창수의 다음 이름으로 ‘김두호, 원종, 김두래’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

다음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입니다. 김구의 ‘구’ 자는 원래 거북 ‘구’ 였지만 아홉 ‘구’ 로 변경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범이라는 호는 미천한 백성을 상징하는 백정의 ‘백’ 과 보통 사람이라는 범부의 ‘범’ 자를 따서 지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자 수준에서는 흰 ‘백’ 에 호랑이 ‘범’ 인줄 알고 있었는데 백성을 생각한다는 마음인 걸 알았습니다. ‘김구’ 라는 이름을 사용하시고 더욱더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3·1 운동, 임시정부 수립, 한민애국단, 흥커우 공원 의거, 사쿠라다몬 의거 등 광복을 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은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항일 운동입니다. 3·1운동 즉, 만세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조선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한일 병합 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우리 고종 황제가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어 고종 황제의 기일에 맞춰 한반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후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 주도와 민주공화국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활동하신 걸 보면 우리나라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김구 선생님은 한일 애국단을 조직했습니다. 한일 애국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한 항일무장투쟁 단체입니다. 그곳엔 대표적으로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등이 있습니다. 이 한일 애국단 덕분에 흥커우 공원 의거와 사쿠라다몬 의거가 발생한 것입니다.

1차 시도에는 이봉창 의사가 나섰지만 폭탄이 불발 되어 아쉽게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는 폭탄에 대해 더 노력하고 연구해 2차 시도에는 결국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봉창 의사는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윤봉길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기록한 업적들은 이것보다 무척 많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고 대단하신데 더 많다니 매우 놀랍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이름 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구 이름 다음으로 ‘장진, 장진구’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다가 돌아오셔서 다시 김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일본에 나라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9번이나 이름을 바꾸시면서 독립활동에 기여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1949년 6월 26일에 사저 경교장에서 정말 아쉽게도 안두희가 쏜 흉탄에 서거하였습니다. 이 엄청 난 업적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 앞으로 할 일이 많으셨을 텐데 많이 안타깝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만약에 김구 선생님이었다면 일본에 위협이 있을 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도망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름 그대로 김창암이라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고 역사에 남을만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원하신 건 완전한 독립도 있었지만 바로 문화 강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KPOP, 한복, 한국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면 지금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꿈을 이루신건데... 상상만 해도 엄청 기쁩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힘든 일을 겪는다면 이 문구를 생각하며 극복할 것이고, 김구 선생님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앞선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백범일지를 읽고

동산중학교 최승원

1876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백범 김구 선생님은 평민이란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얘기를 접하고 열심히 공부해 양반이 되려 한다. 하지만 과거의 실체를 알고는 관상 공부를 하며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동학의 취지에 반해 입도하고 많은 신도를 휘하에 두어 아기 접주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해주성 공격에 실패하고 군사훈련을 하던 중 안 진사를 알게 된다. 전투에서 패배하고 안 진사에게 몸을 의탁한다. 그렇게 청계동에서 생활하며 고능선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다. 의병활동을 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여관에서 만난 왜놈을 죽이고 해주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해주 감옥에서 탈옥하고 방랑하다 집에 왔지만, 아버지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안산학교의 교사가 되고,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과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나 한 달 만에 풀려났다.

아버지의 손가락을 분질러 엿을 사 먹거나 아버지가 만드신 목돈을 떡을 사 먹기 위해 가져가는 등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다르게 엄청난 말썽쟁이였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김구 선생님의 모습은 대한독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인인데 어릴 적에는 그렇게 말썽쟁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한편으로는 여느 어린아이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 친근감도 느껴진다. 김구 선생님이 겪은 감옥 생활은 정말 끔찍했다. 상상하기도 싫은 높은 강도의 고문을 받고도 입을 열지 않으시는 모습이 대단했다. 만약 내가 그 고문을 당한다면 버틸 수 있겠냐고 생각하니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더욱 잘 느껴졌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하며 독립운동가를 돕는 중 윤봉길 의사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제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에 선생님 말씀에 따라 6원을 주고 산 것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이지 않습니까? 제계는 한 시간밖에 소용이 없는 물건입니다.” 이 글을 보고 죽음을 앞둔 상황인데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대단하면서도 삶이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 두려움도 느껴졌다.

김구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는 생각이 놀라웠다. 행복해지려면 많은 돈을 벌거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이 글을 보고 적당한 재력과 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느꼈고 재력과 힘보다는 마음과 문화에서 나오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광복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낸 자주독립이 아니라 외세의 힘을 빌려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만일 김구 선생님의 바람대로 자주독립이 이루어졌다면 분단으로 인한 아픔, 슬픔, 고통도 겪지 않았을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기에 외세의 힘으로 인한 독립과 그들 맘대로 전범국인 일본, 독일 등이 아닌 피해국인 한국을 나누어 버리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생긴다. 그리고 아무리 분단이 되었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더라도 그를 돌려놓기 위한 노력은 커녕 동포였던 자들을 혈투고 심지어 전쟁까지 감행하는 북한의 국민이 정작 한국의 문화에 잠식되어 이를 막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스꽝스럽다 못해 불쌍할 따름이다.

나는 무력 통일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통일된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따금 생각해 본다. 김구 선생님의 바람대로 자주독립을 하였으면 어떨지도 생각해 보았다. 확실한 것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을 한다면 경제적, 정치적인 손해는 있겠지만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줄어들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더욱더 발전된 문화의 힘을 키우고 널리 퍼트릴 수 있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백범 김구,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 여러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살며 전 세계에 우리의 문화를 널리 퍼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2024학년도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대회

학교	신흥여자중학교	학년	1	반	7	이름	이유빈
----	---------	----	---	---	---	----	-----

제목 백범 김구선생님의 백범일지를 읽고 난 뒤 나의 생각들

내가 살고있는 집은 신평동과 가깝다. 어날 어머니께서 신평시장쪽으로 가 심부름을 해오
 라 하셨고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일때 김구 선생 문화의 거리를 알게되었다. 역시시간에도 김구
 선생님의 일지가 중간중간 나왔고 백범일지를 읽어보고 싶었는데 읽게되어 좋았다. 그리고 이
 백범일지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지금 백범일지를 읽기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김구선생
 님의 일생은 고단하고 많은 사랑이 희생되고 대한민국을 일문에 지배에서 풀기위해
 5 여러사랑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받하시는것이 책에 적혀있고 문장을 읽
 을때마다 나라를 빼앗긴 고통이 세세하게 들어나 마음이 아팠다. 이 백범일지에서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원하시지만, 아직 완전히 자주독립되지 못하고 남한과 북한
 이 분단돼 있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소원은 몇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 지지
 못했기에 이 백범일지를 읽는 내내 나도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가 되고 통일을 했
 10 의면 좋겠다. 라고 생각됐다. 백범일지의 마지막 장쯤 김구 선생님이 원하는 대한민국
 이 무엇인지 나오는 내용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높은 문화의 힘' 이였다.

부력은 우리가 생활을 풍족하게만 하면 되고,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한 힘이면 족하지
 만 높은 문화의 힘은 계속, 많이 많이 가지셔야 한다고 나와있다. 나도 이 문장을
 15 보고 동감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일제의 지배를 당했고, 나라를 빼앗긴 고통을 안다.
 그러므로 남의 나라를 지배할만큼의 강한 힘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김구선생님
 이 원하시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 내가 살고있는 2024년도인 지금
 우리는 김구선생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을 만든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의 노래는 전세
 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의 음식, 그림, 전통의상물건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20 부력(경제) 또한 우리가 일상을 풍족하게 살 수 있을정도로 좋아졌고 강력 또한
 남의 침략을 막을만큼의 힘을 키웠다. 나는 백범김구 선생님의 후손들이 만든 이 대한
 민국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백범일지를 더 많은 사람이 읽고 높은 문
 화의 힘을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대한민국, 시민의 자유를 가지므로써 남의 꼴을 겪는 자유가 아닌 나의 꼴을 심고 피
 25 어나 남의 꼴과 조화를 이루는 사랑이 되길라고 생각되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나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며
문화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좋겠다. 다른 나라도 이런 생각을 가져 세계대전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더이
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다.

30

35

40

45

50

2024학년도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대회

학교	신용여자중학교	학년	1	반	3	이름	문지민
----	---------	----	---	---	---	----	-----

제목	『백범일지』를 읽고
----	------------

학교에서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대회를 열게 되어 ‘청소년을 위한 백범일지’를 처음 읽게 되었다. 평소에도 백범일지에 대해 궁금했지만 읽어보지 못했던 나에게 좋은 기회였다. 국어 선생님께서 들어주신 자료 영상을 보고 나니 이 책의 내용이 더욱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었다.

김구 선생님께서 쓰신 백범일지를 풀어 쓴 이 책은 자료사진이 많고 내용을 쉽게 풀어 쓰셔서 이해가 잘 되었다. 백범일지는 김구의 어린시절, 세 번의 투옥생활, 상해 임시정부 경국장, 신민회 단체와 광복군 계획 및 지휘 등 김구의 삶이 잘 나타나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 주요 사건들,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하기 위한 노력처럼 그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여러 부분 있지만 가장 인상깊었던 몇 가지 부분만 정리해보았다. 책을 읽기 전 김구는 인천과 어떤 점이 연관되었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책을 읽으며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김구는 인천 감옥에서 세 번의 투옥 중에서 무려 두 번이나 지낸 곳이다. 첫 번째로는 치하포에서 일본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로는 신민회 사건 이후 일제가 애국자들을 다 잡아갔는데 그중 한 명인 이유로 서대문 감옥에 갔지만 인천으로 이감되었기 때문에 모두 두 번 감옥생활을 인천에서 했다. 그리고 독립 이후 인천에 지방순회를 오셨다는 점도 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고, 김구와 인천이 서로 안 좋은 쪽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다음으로는 독립의 과정 중에서 마무리 단계의 부분이 인상깊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자주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나도 김구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었다. 세계 2차대전에서 독일 나치와 일본군이 먼저 항복을 했는데 항복한 나라의 식민자들은 모두 독립시켜준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독립하게 되었다. 독립을 해서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열심히 준비한 작전과 계획들이 허무하게 날아간다는 것과 우리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점에서의 허탈감과 아쉬움이 더 강하게 남았다.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서도 봤던 부분이라서 더 반갑게 느껴졌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는데 김구 선생님의 겸손함에 놀랐고, 무조건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기만을 원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30

김구 선생님의 삶에서 본받고 싶은 부분도 있었다. 어린 시절 김구는 '과거를 보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는 등 목표가 뚜렷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부럽고 대단했다. 목표가 애매하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나의 모습과 비교되어 조금씩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구 선생님의 삶을 이 책을 통해 살펴보고 다양한 역사 지식을 얻기에 더하여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구 선생님의 큰꿈한 점들을 추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더 알아보고 싶다. 또 김구 선생님의 생각과 행동, 모습들을 본받아 멋지고 더 나은 나를 만들 것이며, 앞으로의 나의 목표를 세워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내가 되고 싶다. 이 독후감을 쓰며 짧지만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35

40

45

50

2024학년도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대회

학교	신흥여자중학교	학년	1	반	1	이름	윤서인
----	---------	----	---	---	---	----	-----

제목	백범 김구 선생님의 삶
----	--------------

□ 국어 시간에 백범일지를 읽게 되면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책 표지를 보니 예전에 읽었던 것이 생각났다. 또 이번에는 더 꼼꼼히 읽어야겠다고 다짐했다.

□ 백범 김구 선생님은 1876년에 태어나,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독립운동가셨다. 그 중 치하포 사건이 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여관에서 칼을 숨기고 있던 왜놈을 맨주먹으로 죽이셨다. 그 왜놈은 칼과 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범 김구 선생님은 잠깐의 고민 끝에 나라의 치욕을 갚기 위해 왜놈을 죽이셨다. 또 그 사실을 당당히 종이에 써서 마을에 알리셨다. 나라면 감옥에서 고문 받는 일이 무서워서 그런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다. 또 그것을 내가 직접 알리는 일은 더욱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하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러워졌다.

□ 치하포 사건으로 인해 백범 김구 선생님은 감옥에 수감되셨다. 삭삭 빌며 감옥에서 하루빨리 노력할 것 같은 나와는 달리, 백범 김구 선생님은 경부관, 감사 등 관리들에게 왜놈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하라며 그들에게 호통 치셨다. 이것을 알고 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당당함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 그 후, 백범 김구 선생님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한국 광복군을 만드시고, 훈련시키셨다. 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항복하면서, 한국 광복군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이 사실을 알고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낙심하셨을 것 같았다. 분명 좋아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 한국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지 못한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고 무척이나 아쉬워하실 것 같았다. 나도 이 부분을 읽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 백범 김구 선생님은 강한 힘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다. 또 침략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나라가 침략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다만, 높은 문화의 힘만큼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셨다. 나도 이 부분만큼은 격한 동의를 할 수 있었다. 아마 백범 김구 선생님이 지금의 한국을 보고 무척 좋아하실 것 같았다. 지금의 한국은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이 책을 읽고 백범 김구 선생님 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운동가에 관한
책들도 읽고 싶어졌다. 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맞서 싸우는 용기, 꾸준히 독립
운동을 하는 끈기를 본받아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려운 어려움이 다시 닥친다면 30
백범 김구 선생님처럼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겠다고 다짐했다.

35

40

45

50

2024학년도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대회

학교	신흥여자중학교	학년	/	반	2	이름	김채운
----	---------	----	---	---	---	----	-----

제목	오로지 나라만을 사랑했던 백범김구
----	--------------------

우리나라 사람들중 백범김구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1876년에 태어나 1949년 안두희에게 피살당하기 전까지 김구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독립운동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를 꿈꾼
 훌륭한 정치가 있었다. 한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나
 많은 일을 겪을 수 있을까 만큼 그의 삶은 매우 치열했다. 5
 김구는 과거시험을 보러갔지만 사람들이 매만매석하는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권유로 관상을 공부하게 되고 김구는
 자신의 관상을 보며 천하고 흉한 관상만 있는것을 알게되지만 책에서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것만 못하고 몸 좋은것이 마음 좋은것만 못하다,"
 라는 말을 되새기며 평생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이후 김구는 동학 10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의병운동에도 참여한다. 명성황후가 시해된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본인을 죽여 인천 감옥에 투옥되어 사형수가 되었지만
 고종에 의해 사형을 면하기도 하였다. 1898년 감옥에서 탈옥한 김구는 승려
 생활을 하기도 했고 교육활동과 계몽운동에 종사하기도 했다. 이름을 백범으로 15
 바꾼후에는 오직 독립운동에만 집중하여 살기로 결심하지만 그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백범김구에게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에만 정념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고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하님이
 김구에게 세가지 소원을 물어봤을때 답하는 장면이다. 김구선생은 20
 첫번째는 우리나라의 독립, 두번째도 우리나라의 자주독립, 세번째도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이라는 대답을 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세 소원
 모두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밝한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장면이 가장 인상깊었다. 25

이렇게 많은 독립 운동가분들이 직접 헌신하셔서 지킨 우리나라를
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나라를
위해 직접 헌신하셔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의 우리나라를 멋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이 책 덕분에 가지게 되어 매우 좋은 다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30

35

40

45

50

2024학년도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대회

학교	신흥여자중학교	학년	1	반	6	이름	김민경
----	---------	----	---	---	---	----	-----

제목 "청소년을 위한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이번에 학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백범일지"라는 책을 읽어보았다. 김구는 우리나라의 멋진 독립운동가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들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온 생애를 거러와 조국의 자유해방 독립통일에 바치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웅한 스승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자유로우며 높은 문화를 가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전세계 인류와 함께 손잡고 세계평화를 발전시켜 나갈것을 간절히 소원하셨다.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을 위해 세계평화를 발전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고, 우리나라를 지키려고하는 마음이 엄청 멋있고 대단하고, 많이 감사하다는 생각과 함께 김구 선생님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발전이 더디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257P에 "우리들의 미래를 개척하면서 자유롭게 자주독립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하라."라는 문장을 보거나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은것은 김구 선생님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쓴 저자의 말로 이 글을 쓸 생각을 한것은 "자신이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면서 자신의 몸예 죽음의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일을 시작할때에 당시 볼크에 들어와 있던 어린 두 아들에게 내가 지낸 일을 알려주는 동기에서였다." 라는 말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열지를 이 계기로 통해 쓴다는것이 살짝 어렵고 이해가 안났지만, 마지막 문장으로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찾고,세우고, 극장하여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 종포가 진실로 독립정신을 가지는 날이고 참으로 독립하는 날이다."라는 문장에서 저자님의 생각과 마음의 이해가 깊다. 처음에 이 책을 추천, 우리나라에는 너무 어렵고 읽기도 힘들고 언어들도 흔하지않아서 많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것 같았지만, 막상 이 책을 읽어보니 김구의 어린시절부터 마지막 일과까지 책을 통해 알아봐서 김구의 생을 전체적으로 도돌아보고, 읽기 전 생각과 달리 책 내용이 살짝 어렵긴 하지만 막상 읽어보니 재밌고 역사에 대해 더 잘 알아볼것 같아서 많이 흥미롭고 열지가 굉장히 신기했다. "이렇게 저 많은이야기를 책 한권으로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 김구는 우리나라의 최고 독립운동가이며 미래를 생각하는 내가 생각했던 김구보다 더 멋진 김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기교가 된다면 다른 김구 백범일지를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로서 "청소년을 위한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여었다.

5
10
15
20
25

2024학년도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대회

학교	신영여자중학교	학년	1	반	4	이름	김채연
----	---------	----	---	---	---	----	-----

제목 청소년을 위한 백범 일지를 읽고

내가 읽은 책인 청소년을 위한 백범김구인테 이 책은 백범김구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자손에게 남기는 어찌보면 유언같은 이야기를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고 잘 이해되게 풀어쓴 책이 이 청소년을 위한 백범김구이다, 백범 김구는 안동김씨 경순왕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책의 첫말 역시 우리는 안동 김씨 경순왕의 자손입니다, 라는 말을 보면 자신의 자손들에게 팔리겠다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 이책의 내용으로는 김구의 어린시절, 첫번째 득, 승려생활, 독립운동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김구의 어린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김구의 어린시절이 왜 기억에 남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책을 읽어보라고 할 정도로 김구는 어린시절 엄청난 장난꾸러기였다, 예를 들어 백범김구 중 괴롭히던 아이들의 집까지 식칼을 들고간 일이나, 아버지의 돈을 훔쳐 떡을 사먹다가 걸려 배를 맞은 일등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있던 백범김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인자한 분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고 첫번째 득을 김구가 치라포에서 행패를 부리던 일본 장교를 죽이고 돈을 훔쳐 감독이 같이 사형을 받고 탈옥 하신후 승려생활은 인형에서 탈옥후에 같이 탈옥했던 자와 중이 되셨고 독립운동은 승려 생활을 그만두시고 독립운동을 시작하신 남부터 돌아가신 분이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궁금한점이 있었는데 어찌보면 김구의 첫 독립운동은 행패를 부리던 일본 장교를 죽인것인데 당시 김구는 왜 일본 장교를 죽인것일까? 이 것이 어찌보면 독립운동이라는 것에 불씨를 지킬것일테니 어찌보면 젊은 시절부터 있었던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책의 끝쪽에 보면 배위원, 박규가, 정리이념, 내가 원하는 후기나 백범 김구의 연애가 있는데 백범김구의 연애는 백범 김구의 삶을 되돌아 보기가 좋았고, 여기서 내티 소원에서 하티 쉼터 소원도 두번째도 셋째도 모두 우리나라의 자국특권이요 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내티이전 내가 원하는 젊은 문화가 많은 나라도 등 책전생애의 여러 유익한 말씀들이 적혀있어 좋은책이고 김구 선생님의 삶과 여러 독립운동가 그리고

5

10

15

20

25

독립운동들이 사세미 작여있어 역사를 좋아하고 흥미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추천하고 싶다.

30

35

40

45

50

2024학년도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대회

학교	신흥여자중학교	학년	1	반	5	이름	류솔
----	---------	----	---	---	---	----	----

제목	청소년을 위한 백범일지
----	--------------

제가 읽은 책은 '청소년을 위한 백범일지'입니다. 이 책은 김구의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독립하면서 겪은 이야기 등을 담았습니다. 책의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1876년 7월 11일 김구가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시험을 보기도 하고, 관상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구가 20살이 되던 해 고능선이라는 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 김구는 밥도 먹지 않고 고능선 학자에게 앓을것을 배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리와 백성의 도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구는 고능선학자의 집을 떠나서 앓을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옥살이도 하고, 중국에 갔다오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김구는 이 장면을 보고 일본에게서 독립해야겠구나 생각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김구는 매시간을 독립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결국에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에게서 독립하게 됩니다. 김구는 그후로도 우리나라 남북통일을 힘쓰다가 1949년 6월 26일에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서 서거 하셨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김구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보면서 장난꾸러기 성격이셨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김구하면 정말로 무서운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어린시절에 가족들과 있었던 일을 보니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부분을 보면서 되게 앓은부분에 재능이 있으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좋은 집안과 평화로운 시대에서 태어나셨다면 무조건 성공하셨을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또 고능선 학자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멋진 말만 해주셔서 직접 고능선 학자분이 원하신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217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분들끼리 환국기념으로 찍으신 사진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을 들어보기만 하고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한번에 느낌이 와서 인상 깊었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는 이야기가 끝나고 김구가

5
10
15
20
25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부분이 인상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전부터
조금 알고 있었는데 김구의 살아온 이야기를 다 읽고 다시 이 말을 들으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몇번을 물어보든 소원이 바뀌지 않고 대한독립
이라고 하신 부분이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저였다면 절대로 이런 소원을
말하지 않고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소원들을 말했을 것 같은데 너무 존경스러
웠습니다.

30

35

40

45

50

2024학년도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대회

학교	신흥여자중학교	학년	1	반	7	이름	홍연우
----	---------	----	---	---	---	----	-----

제목	식지 않은 온기
----	----------

이 책은 김구 선생님의 인생이 들어있는 책이다. 이 책은 김구 선생님의 어린시절과 투옥생활, 독립운동, 임시정부 때의 일들을 담고 있다. 책을 읽으며 정말 감동하게 감명받은 구절이 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네 소원은 대한 독립이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라는 구절인데, 이유로는 이 구절에서 김구 선생님의 독립에 관한 바람과 소망이 간절하고 선명하게 마음 속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김구 선생님과 같은 상황이 처해 있다면 저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아니다. 두려움과 조바심으로 인해 한 발자국도 내디디 못할 것이다. 따라서 김구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느껴진다. 비록 완전한 자주 독립은 아니었지만, 김구 그 과정속에 독립을 간절하게 바라던 뜨거운 온기와 열정이 책을 읽고 가슴 한 편으로 새겨진다. 그리고 또 한 인상깊었던 구절이 있는데, 바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건 원치 아니한다. 우리 민족이 주연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라는 구절들이다. 이유로는 이 구절에서 김구 선생님의 가치관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현재 우리는 주연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올라가있다. 20

참담했던 과거와 달리, 높은 곳에 정착해 있는 우리를 김구 선생님께서 보신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것도, 신흥여자중학교 1학년 7반 교실에 앉아서 평화롭게 백범일지 독후감을 쓸 수

5

10

15

20

25

있는것도 과거 독립의 과정 속 희생과 노력
덕분이다. 그러나 식지 않은 뜨거운 온기와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힘차게 빛나고 반짝거리며 살자.

30

35

40

45

50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 모습보다 훨씬 좋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장에 갇을 때 부정부패한 현실에 절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의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통의 고문을 오직 애국심으로 견디시는 모습이 대단하셨고, 잘못
한 행동을 한 일본 사람을 주저하지 않고 칼로 살해하시는
모습에서도 김구 선생님은 애국심이 정말 강하신 분이라는 걸 느끼고,
나를 돌아보며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했다.

두번째는 실행력과 끈기이다. 김구 선생님이 관료가 되기 위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정말 산을 오르내리시며 바른바른 행동
하시고, 끈기있게 공부하시는 모습이 목표를 위한 열정이 그대로 느껴
졌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실행력과 끈기가 내가 평소에 제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라 정말 본받고 싶었다.

세번째는 리더십이다. 동학 농민에 들어가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얼마지나지 않아 아기집주라고 불리는 모습이 아기 집주로 불리기
전, '얼마나 많은 리더십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
그리고 회장 활동을 여러번 해 보아서 리더가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책임감과 희생이 필요한지, 그 과정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2024 『백범일지』독후감 쓰기 대회(2024. 7. 22.)

용현여자중학교	2학년 3반 8번 이름: 남하정
제목	본받고 싶은 인물, 백범 김구 선생님.
<p>잘 알기에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보다 훨씬 멋지고, 대단한 리더십을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었다.</p>	
<p>이 백범일지 책은 평소에 소설과 자기개발서를 좋아하는 나에게 자서전의 즐거움을 안겨준 책이라 큰 여운을 남겨주었다. 그 이유에는 김구 선생님의 나라를 위한 뜨거운 마음이 첨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며 반성도 하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기에,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에게 추천 해 드리고 싶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께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면, "제가 꼭 김구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 사회가 어둡더라도 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 나라를 지키신 보람을 느끼게 해 드릴게요."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다.</p>	
<p> </p> <p> </p> <p> </p>	

2024 『백범일지』독후감 쓰기 대회(2024. 7. 22.)

용현여자중학교	2학년 2반 19번 이름: 이가연
제목	독립을 위해 애쓴 김구 선생의 삶
<p>요즘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좋지 않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울퉁불퉁을 날리고 있고 남한에서는 화성기를 들겠다고 한다. 이로 인해 나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들이 무책임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경우를 보았다. 이를 보고 좋은 부모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으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다. 백범 일지를 읽고 나는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다.</p> <p>김구 선생은 평생을 감옥 안과 밖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위해 애썼다. 전쟁 후 우리나라의 책임까지 생각하였다. 김구 선생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윤봉길, 이봉창의 가족을 찾아 갔고 다시 장례를 치워주었다는 점이 놀라웠다. 이 행동으로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구 선생이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는 마음이 따뜻하여 그를 그라워하고 칭송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p>	

리구 선생의 어머니는 리구 선생을 '너'라고 부르지 않고 '자네'라고 부르셨다. 리구 선생의 어머니는 곧 많은 사람의 본보기가 될 리구 선생에게 먼저 본보기가 되려고 리구 선생을 높여뵈는 것 같다. 리구 선생과 청년단이 리구 어머니의 생일 잔치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리구 선생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보태며 이 돈으로 권총을 사서 일꾼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다. 또 리구 선생에게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행동으로 리구 선생의 어머니가 리구 선생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에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위해서는 리구 선생의 어머니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리구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신을 잘 다스리셨다. 리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한번도 돈과 권력을 욕심내지 않았다. 임시 정부 내부 총장인 안창호에게 임시 정부 운지를 시켜달라고 하였다. 임시 정부에서 경찰청장급의 고위 관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로 들어온 돈을 한번도 자신을 위해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 또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독립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우셨다.

백범 일지를 통해 리구 선생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된다고 말하셨던 리구 선생이 곧 전쟁이

2024 『백범일지』독후감 쓰기 대회(2024. 7. 22.)

용현여자중학교	2학년	6반	10번	이름: 백소영
---------	-----	----	-----	---------

제목	백범일지를 읽고
----	----------

1학기 2회과가 막 끝났을 무렵, 학교에서 배부한 백범일지 책이 생각이
나 서슴지 않고 차근차근 읽어보았다. 내가 백범일지를 서슴지 않고 흥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 독립운동가 분들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해방기를 거쳐 조국에 돌아와 활동하기까지의 삶을 담았다.

<백범일지>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김구 선생의 마음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려는 노력, 의지, 뜻에서는 안 될 일제강점기에 관한 이야기,
진정한 독립에 관하여 이야기 한다. <백범일지>에는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거쳐 조국에 돌아와 활동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삶 속에는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나라의 모습이 보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의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거리의 영웅들도 보인다. 결국,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의 자서전 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 시대의 기록이다.
또한 <백범일지>에는 김구 선생과 가족, 이봉창 의사와 윤용일 의사가

담긴 사진과 함께 김구 선생이 직접 쓴 저서말과 <나의 소원> 원문을

담았다. 김구 선생은 이것 외에도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행동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이 책에 실린 유명한 사건이 '치하포' 사건이다.

치하포 사건은 1896년 3월 9일 백범 김구가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에서

일본인을 타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을미사변과 갑오개혁, 조선인의

투쟁의식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국외의 운수를 밝기 위해'

라는 명분을 내건 김구 선생의 일본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

나는 이 책의 수많은 구절 중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이 구절이 가장 인상깊었다.

누군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의 소원이 아닌 온전히 나라를

위한 소원을 답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존경스러웠고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김구 선생의

생애와 민족애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항상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진정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렸다. 이런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며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다짐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글을 빌려 말하고 싶다. 우리 모두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언제나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조국을 위해 노력하자. 나는 그것만으로도 하늘나라에 계실 - 2 -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실 거라 생각한다.

2024 『백범일지』독후감 쓰기 대회(2024. 7. 22.)

용현여자중학교	2학년	반	21번	이름: 이소민
---------	-----	---	-----	---------

제목	'독립'이란 진정 무엇일까.
----	-----------------

나는 '백범일지'를 읽기 전, 김구 선생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힘 써주셨다는 사실만 알고,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는 상태였다. 그래서 '백범일지'를 읽기 전, 걱정이 많았다. 책을 열자마자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 이 나왔기 때문이다. 단어의 뜻이나 문맥을 이해하기 어려워 인터넷에 검색하는 일도 잦았다. 그래서 책 읽는 걸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왜냐, 세상에 이런 말이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다. 역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이기때 이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책을 읽기 전 상황을 이야기 했으니, 책으로 들어가 볼까 한다.

'백범일지'는 내가 김구 선생님의 삶과 독립운동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선생님께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국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신 분이데, 그 신념과 의지를 읽지 않았었다. 또한 투철한 애국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이는 마치 내 마음에 묵직한 돌을 던진 것처럼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선생님께서 하신 활동으로는, 의열단 활동, 3.1운동, 상해 임시정부 수립 등이 있다. 이런 활동을 하시며,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다. 바로, "나보다 조국독립을 중시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이다.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조국 독립을 위하여 얼마나 힘써셨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우리나라 아이들 중 김구 선생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나 또한 그랬다. 그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백범일지'를 읽고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백범일지'를 읽다보면, 뒷부분에 '나의 소원'이라는 주제의 내용이 나온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하느님이 만약 소원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의 독립이요."라고 말한다고 하셨다. 또, 두번째 소원으로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라고 말한다고 하셨다. 역시나 세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라고. 여기서 자주독립이란, '남의 간섭이나 보호를 받지 않고 원대이지 않은 것'이다. 나는 이 내용을 읽고 그만 참고 있던 선물을 쫓아냈다. 누군가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왜 우냐, 라고 말할 수 있게지만 나는 이미 대하여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김구 선생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다.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는 독립하였을까? 나라 자체가 독립한 것은 맞다. 단, 나는 독립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독립은 깊은 바닷속에서 헤엄쳐 나오는 것이다. 일본에게 발목을 잡혀 우리는 깊은 바닷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헤엄쳐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얽은 바닷속에 있다. 왜냐, 우리는 아직 다른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서는 법을 모른다. 그럼다면 어떻게 홀로 서냐? 우리는 역사에 대하여 잘 모른다. 우리가 넘어져가며 걸었던 길을 되돌아보아야, 비로소 더이상 넘어지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던 나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다른 이들도 이 책을 읽고, 우리의 태도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독립'은 누구 혼자 ^{독립을 받들어 남겨진} 짚어갈 집이 아닌, 우리 모두가 힘써 이겨내야 할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백범일지'를 많은 이들에게 추천하고, 이 글을 마친다.

2024 『백범일지』독후감 쓰기 대회(2024. 7. 22.)

용현여자중학교	2학년 / 반 10번 이름: 박예송
제목	언제나 잊지 않습니다.
<p>백범 김. 안동 김씨 경순왕의 자손으로 태어나 우리나라 독립에 유공하신 바 있다. <청소년을 위한 백범일지>는 김 선생의 유년 시절부터 일제강점기와 임시 정부 시절, 해방기, 조국으로 돌아와 바친 노력들이 담겨 있으며 이를 신경림 시인이 풀어놓는 것이다. 백범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그 일생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터. 특히 한자를 배우지 않은 학생이라면 더더욱이다. 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된 나도 그렇다.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백범 김의 어린 시절이다. 조숙한 아이였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먹으려고 아버지 손가락 반 토막을 분질렀다 하니 참으로 여인이어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자신의 관상에는 흉한 것만 가득하다 했으나, 이후 그의 삶과 업적을 생각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비록 백범의 생애는 평온하지 않았을지언정, 그 삶 아래 살아갈 후손들에게는 평화가 뒤따르고 있으니.</p> <p>이렇듯 여느 평범한 집 아이와 크게 다를 것 없던 유년을 지나 찾아온 청년기에는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한다. 을미사변의 응징으로 일본 사람을 사살한 것이 그 죄였으나, 간신히 빠져 나온 이후에도 기구한 일생은 계속됐다. 백년가약을 맺을 나이에 약혼녀를 잃은 것이다. 당시 백범은 남자라 한들 학생을 지냈으면 하였고, 오히려 약혼한 처녀를 직접 가르칠 정도였다. 그러나 여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백범이 손수 염습하여 묻어주었다는 그 한 줄이 펄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그 후 일본 헌병에 붙잡혀 감옥살이를 하고,</p>	

사랑하는 두 딸과 부인 최혜례까지 사랑하며 힘든 시기를 보낸다. 백범은 독립운동에만
전념했는데, 아아 그것이 슬픔을 잊을 유일한 길이었으리라. 이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문봉길
의사의 홍공원 의거다. 마지막 싸울 들된 날 아침, 윤 의사는 6원짜리 시계를 내밀며
백범의 2원짜리 시계와 바꾸자고 청한다. 이제 자신에게는 한 시간밖에 소용이 없는 물건
이라고. 워낙 유명한 일화인리라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앞이야기를 전부 알고 보니 정말로
가슴 미어지는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죽음을 눈앞에 두어도 독립운동의 의지를 굳히 지켜낸
윤봉길 의사께 경의를 표한다. 고귀한 희생들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은 광복을 이루었고,
백범 김구 선생은 1949년 안수희의 총탄에 맞아 생을 마감했다.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자서전으로,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민족의 아픔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대한
민국 국보다. 나는 백범일지를 읽으면서 '성탄'이라는 감명을 많이 느꼈다. 독립운동을 향한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단단한 결의 위로, 지금 내가 평안히 걸어가는 이 땅이 있는 것이다.
백범 김구의 뜻 역시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으며, 백범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읽으며 여실히 엿보게 된다. 백범 김구께서 원하신 대로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는 수준이 높고, 더 발전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백범께서는 사랑하는 나라를
보여 웃고 계시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러하다면, 나는 달지 못할 말을 전하고 싶다. 감사
하다는 말, 동경한다는 말, 그리고 나도 그 마음을 본받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신
모든 선조들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말을.

2024 『백범일지』독후감 쓰기 대회(2024. 7. 22.)

용현여자중학교	2학년 6반 22번 이름: 장수희
제목	『백범일지』를 읽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p>『백범 김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다. 그런 그가 쓴 백범일지 또한 한국인의 필독서이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이제껏 읽어본적이 없었다.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스스로 그를 알아보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니 뭉클한 땀겨울 뿐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서라도 읽게 되어 감사함을 느낀다.</p>	
<p>백범일지는 김구의 삶과 민족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책이다. 단 한 역사 기록을 넘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중요한 문서이며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 대한 독립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한다. 나는 책을 읽으며 그의 어린 시절에서는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는 모습에서는 존경스러운 면모가 느껴졌다. 나는 마지막 책장을 덮고도 생각난 한 구절이 있다. 바로 그 유명한 '나의 소원' 내용이다. 책을 읽기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김구의 일생을 알고 다시 읽으니 마음에 더욱 크게 와닿았다. 자신의 세 가지 소원 모두가 대한의 자주독립이라고</p>	

2

알하는 그를 통해, 나는 그의 삶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가 얼마나 대한의 자유를 원했는지가 느껴져 가슴이 저릿하게 까지 했다.

나는 이 책 속 김구의 모습을 보며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물론, 삶의 지혜도 알게 된 것 같다. ^{생소한} 어려운 어려움을 마족하더라도 자신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그가 끈기있게 유지한 신념과 삶의 책임감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신념은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게다가, 경무국장으로 일하는 김구에게서는 결단력나 통찰력도 보며 책을 읽는 내내 존경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다.

또한, 나는 독립운동가분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원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이봉창 의사를 포함해서 자신이 후에 기억되길 바라며 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잊을 것이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우리 말을 쓸 수 없는 아픔을, 가혹한 헤엄쳐야 할 수 밖에 없었던 슬픔을 자신의 자손들에게까지 물려 주진 싶지 않았기에 목숨까지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들이 바라는 자유 근처에서 한반도

3

2024 『백범일지』독후감 쓰기 대회(2024. 7. 22.)

용현여자중학교	2학년	6반	22번	이름: 장주희
---------	-----	----	-----	---------

제목	『백범일지』를 읽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	------------------------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숨은 영웅들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글을 쓰며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다. 아직 우리에게
 남북의 통일이라는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다. 이 숙제를 풀기
 위해, 많은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민족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의 조국이 세계에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로 살어나온
 독립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했던 백범 김구 선생과 수많은
 이들 덕분에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며,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앞으로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넓은 시야로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2024 『백범일지』독후감 쓰기 대회(2024. 7. 22.)

용현여자중학교	2학년 8반 9번 이름: 김태희
제목	'대단하고 훌륭한 '백범 김구 선생님'
<p>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백범 일지? 그게 뭐지?' 백범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말하는 건 알았지만 백범일지가 무엇인지 몰랐다. 너무 두껍고 어렵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한 일을 하신 백범의 이야기 같아 읽어보기로 하고 책을 펼친다.</p> <p>'백범의 어린시절 이름은 김창암으로 장난을 많이 치고 부모님께 몹이 혼나는 개쟁이였다고 한다. 백범 선생님이 개쟁이라니 상상도 하지 않는다. 백범은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과거시험장으로 가지만 부패한 모습에 충격을 받아 관상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의 밑줄에는 부자 관상은 커녕 가난하고 천한 관상 밖에 없었다. 얼굴보다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라는 구절을 읽고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수많은 실패를 겪고 포기할 법도 한데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것이 정말 대단하신 분 같다. 그 후 용학에 입도해 이름을 김창수로 바꾸고 치하포에서 일본의 육군 중위를 살해한다.</p> <p>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 가가사로 살게 된다. 이때 민반 동지들에 의해 이름을 김구라고 바꾼다. 이 때부터 정말 남다른 분이셨던 거 같은 게 나는 감옥갈 생각에 나라의 권수를 죽이지 못 했을 거 같은데, 죽이다나</p>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도 하시고 상해에
 망명해 임시정부에 들어가 여기서 한인 애국단을 세운다 이
 때 이봉창 의사의 일왕 거적 의거와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를
 일으켜 전세계적으로 독립 의지를 알린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이 두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봉창 의사는 평온한
 증거물을 맛보고자 길을 떠난다. 윤봉길 의사는 자신의 6원짜리
 시계와 백범의 2원짜리 시계를 바꾸자고 청하며 자신에게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한 시간 밖에 남지 않은 물건이니 소용없
 는 물건이라고 한다. 나는 이 두분의 이야기가 제일 인상 깊다.
 슬프고 안타깝기도 하며 이 일을 통해 많은 사실들이 알려졌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 광복군과 미국이 작전을 세우던 중 일본의 갑작
 스러운 항복 소식이 들린다. 백범은 자주적으로 독립해야만 훗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알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정말 공감
 되는 부분인 것이 내가 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계획이 필요없어졌다라고 하면 정말 걱정이 앞설 거 같다.
 백범은 74세에 흉탄에 맞아 생을 마감한다. 백범 김구 선생님,
 그저 대단하시고 훌륭한 분이시다는 것 밖에 아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그저 대단하신 분이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일들과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내가 지금 대한민국
 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모두 그들 덕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전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정말 좋은 책이기 때문이다.

2024 『백범일지』독후감 쓰기 대회(2024. 7. 22.)

용현여자중학교	2학년 / 반 26 번 이름: 주시은
제목	영원히 기억될 우리들의 영웅
<p>『백범일지』,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내용이 한 가득 들어있는 것만 같아 읽기를 주저했었다. 우리나라, 대한 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알아야 할 우리의 역사를 마주하기 두려웠던 것 같기도 하다. 『백범일지』를 읽는 내내 ‘김구 선생님은 배우자 하는 의지가 넘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차마 떨어내지 못하고 입 안에서만 맴돌았다. 내 생각을 뱉으면 의지가 없던 지난 날에 내가 생각이 나 귀머리에 순교 싶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사실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아픈 역사이며 꼭 기억되어야 할 우리의 역사이지만,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물론 나도 그 중 하나였는데, 『백범일지』를 읽으며 우리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머리속을 맴돌며 이젠 우리가 지켜나아가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 둘 모여 우리에게, 더 나아가 이 나라에게 영향을 줄지는 모르는 일인 것이다. 독립을 부르며 해방되기만을 기다리셨을 권민들과 나라를 위해 싸우신 독립운동가분들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배우자 하는 의지를 불태워 우리는 우리만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하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처럼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젠 우리의 차례인 것이다. 그 날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잔혹할 것 이다. 하지만 역사를 바로 잡고 잊지 않기 위해서는 쉽게 설명된 『백범일지』를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나 또한 이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이 많았으며 분명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p>	

그리고 다시 돌아보게 한다. 너무 쉽게 포기를 외치진 않았는지, 나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도움을 청하진 않았는지. 책 속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이 꼭 내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더욱 몰입이 되었던 것 같다. 다른 책 중 일문군 '위안부'를 다룬 「그래도 나는 피였습니다」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점도 신기했다. 비슷한 시대 얘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백범일지」를 읽은 후 이제 우리는 하나에서 둘이 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빌이 거창해서 이렇게, 혹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너무 자기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다. 하나는 힘이 없다. 우리로써야 비로소 강해질 수 있다. 우리의 용기가 하늘에서도 쉽게 쉬지 못하실 그분들에게 닿길 바란다. 여름 바람에 태극기가 휘날리며 우리의 외침이 하늘까지 닿도록, 광복 하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던 분들에게 우리의 존경심이 닿도록 돌아오는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에 짧은 글이라도, 태극기라도 달아보는 것은 어떨까? 누군가에게는 그저 휴일이 될 수도 있지만 책 속에 담긴 사람들과 국뽕을 모두가 바랐을 광복이 선포된 날에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느낄 수 있을까 8월 15일 광복절은 나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라도 그냥 휴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외침과 그들의 외침이 닿기를, 간심이 닿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다. 이젠 우리가 발 벗고 나설 차례이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런 뜻깊음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백범일지」를 추천하며 재차 강조하지만, 이젠 우리의 외침이 울려 퍼져 나아갈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문구를 가슴에 안으며 기억하고 또 되새기길 바란다. 우리의 역사를 지켜 나가며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

인천운서중학교	2024 교과연계	1학년 2반 16번	
♥즐거운 학교♥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이름	윤재웅

1. 제목	김구의 백범일지 독후감
<p>학교 국어시간, 김구의 백범일지로 독서감상문 대회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백범일지는 독립운동가이신 김구 선생님의 74년 인생이 담긴 보물같은 책이다. 이 책은 김구 선생님의 대한독립에 대한 의지와 민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다.</p> <p>백범일지는 안동김씨 경순왕의 자손인 김구의 집이 망하고, 고향으로 피신을 가며 시작된다. 김구는 12세에 양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여 17세에 과거를 보았지만 온갖 부정행위가 오고가 부패된 시험장을 보고 동학에 입도 하여 18세에 접주가 된다. 그 시점 시작된 동학농민 운동에서 김구는 동학군의 선봉장으로서 활약하지만 동학군의 내분으로 인해 청계동에 있는 안진사를 찾아간다. 그렇게 안채훈의 집에서 살게 된 김구는 안진사의 맏아들인 안중근도 만나고 얼마 후 배움을 위해 김현진과 1년 동안 청나라로 가게 된다.</p> <p>을미사변이 끝나고 귀향을 결심한 김구는 나라로 돌아가다 지하포에서 일본 육군 중장인 스치다를 국무 보수혐의로 살해 응징하고 투옥되어 사형을 선고받지만 탈옥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이 된다. 하지만 점점 국내외 동포들의 독립사상이 위축되고 갈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 이봉창 의사가 김구를 찾아와, 자신의 포부를 밝힌 후 일항을 저격한다. 하지만 총알은 일항을 명중시키지 못하여 거사는 실패로 돌아간다. 그 후 채소 장사로 상계를 유지하던 윤봉길이 임시정부를 찾아와 독립운동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밝힌 뒤 다음 날 아침 김구와 시계를 교환하는 것으로 작별인사를 한다. 그 후 윤봉길 의사의 거사가 성공하고 여러 가지 도움과 이름 모를 여러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임시정부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 후 일제의 진주한 공습을 계기로 김원봉의 합류, 미국과 손을 잡는 등의 여러 도움으로 광복의 희망이 보이던 그때 일제의 갑작스런 항복으로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했지만 김구가 그토록 바라고, 희망하던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이루지 못한 채로 책은 막을 내라 된다.</p> <p>솔직히 나는 백범일지를 '상을 받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읽을 수록 그러한 나의 모습을 비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눈앞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였고 그것이 인생을 사는 이유이자 낙이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러한 나의 생각을 깨부시고 좁은 생각을 버리게 해주었다. 또한 나는 이 책이 단순한 독립운동가 김구의 일기록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다른 여러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단단한 원동력을 심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하나의 길잡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무모하게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우면서도 언제나 동포들을 아끼고 챙기던 김구 선생님의 진심어린 말과 행동에 받은 감동은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독후감을 마무리 하려한다.</p>	

인천운서중학교	2024 교과연계	1학년 3반 7번	
♥즐거운 학교♥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이름	최송연

2. 제목	청소년들을 위한 백범일지
<p>“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김구의 유명한 명언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흔히 명언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지혜나 용기가 될 수도, 문제의 해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명언이라는 것이 한 인물의 삶의 지혜를 한 문장에 압축해 놓은 것이므로 속에 담긴 지혜가 쉬이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저 그 인물에게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알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훨씬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명언의 참된 사용법이다. 백범일지를 읽음으로써 김구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고 그의 지혜와 의지를 엿볼 수 있으니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지적 자산이 아닐까 싶다. 책을 읽은 후 ‘백범 김구’라는 인물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죄송스럽게도 아직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못한 분위기에 모든 면에서 새롭게 다가올 테니 순수한 감상을 적을 수 있어 좋은 기회일 듯 하다.</p> <p>김구는 어린시절 훌륭한 스승을 찾아 다니며 학문을 깊이 깨우치고 애국심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원수인 왜놈을 직접 처단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조국을 향해 헌신하는 정신을 갖춘 영웅으로 불리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강한 애국심을 갖고 독립운동에 열중하였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지를 알아보고 그들의 독립운동을 도왔으며, 광복 이후에도 국민회의장으로 활동하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힘썼다.</p> <p>책을 모두 읽은 후 책을 읽었다는 느낌보다는 삶을 읽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책을 읽는 동안 계속해서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과 경외심이었다. 굴곡이 많고 설 틈이 없던 그의 삶을 읽으며 피로감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정작 책 속의 김구는 강인하고 묵묵한 모습으로 모든 상황들을 견디어 내고 있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버겁기만한 일생을 살며 이렇게나 많은 업적을 이루어 냈으니 그야말로 존경스러운 인물이라 느껴졌다. 책을 읽기 전 그저 역사적 위인으로만 느껴졌던 김구가 이렇게 단단하고 강인한 인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 대단히도 놀랍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다’는 표현이 한없이 낮설기만 했으나, 책을 읽는 동안 만큼은 그의 애국심을 온전히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다. 책을 읽는 도중 느꼈던 감정이 존경심과 같은 것이었다면, 책을 모두 읽은 후 느꼈던 감정은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이었다.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뼈저리게 느꼈다. 역사 속의 인물들은 모두 민족 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과거에 그렇게도 보존하고자 했던 정신들이 오늘날 하나하나 잊혀져가고 있다. 무관심이 불러올 재앙은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관심을 일관한다. 나조차도 역사에 대해 공부하기를 꺼리고 있으니 어느새 죄책감, 수치심 같은 감정들이 얽게나마 마음속에 깔려 있었다. 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무언가 실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쉬운 일이겠지만, 안타깝게도 보통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역사를 상기시킨다면 건강한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건강한 수치심은 타인을 시기, 질투 하지 않으며 가슴 한켠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우리를 발전하게 하고 역사를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준다. 김구 선생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평가하고 개발시킬 수 있어 기쁘다. 그러나 이조차도 청소년들을 위해 요약 해놓은 것이리라 기회가 된다면 백범일지 원본을 읽고 더욱 심오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인 김구의 시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책이다 보니 한국에 사는 청소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p>	

인천운서중학교	2024 교과연계	1학년 3반 17번	
♥즐거운 학교♥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이름	이정우

3. 제목	백범 김구 선생은 위대하다
<p>국어시간에 기회가 되어서 백범일지 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사실 이름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읽어 볼 엄두가 나지 않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국어시간에 이 이 '백범 일지'라는 서적을 쉽게 풀어 쓴 것을 읽게 된다고 하니 나로서는 기쁨 따름 이었다. 독서 시간, 책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집중하며 읽었다. 책 속 내용에 점점 몰입하게 되어 책 속 등장인물 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함께 기쁨, 고뇌, 슬픔 따위의 감정을 느꼈다. 책의 줄거리를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 백범 김구 선생의 인생을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풀어낸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일생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셨다.</p> <p>이 책을 읽고, 나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다. 나였다면, 김구 선생에게 닥친 상황을 똑같이 맞닥뜨렸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김구선생님은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와중에도 포기하거나 낙담하기는 커녕 모히려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이 질문에 나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일은, 오직 '김구 선생'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왜세가 억압해 오고, 체포를 하려 혈안이 되어있는데도 김구 선생님은 담담하게 임시정부의 목적과 자신 스스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곳으로 도피를 하고, 자신의 가족이 죽고, 동포가 무참히 살해 당하는 등의 힘든 일이 여러 번 경험하지만, 다른 일원이 독립운동을 그만 두고 왜놈에게 달라 붙을지언정 자신은 절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런 독립운동과 관련된 일을 국내에서만 한 것이 아니었다. 해외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에 우호적인 사람을 찾아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며 노력했다. 그러면서 점차 세력 키워나갔고, 마침내 1945년 뜻하진 많은 일이었지만 일본이 먼저 항복을 선언했다. 이런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오직 김구 선생님은 '일제를 굴복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으로 청년들을 양성했는데, 참으로 슬프고도 아쉬운 일이다'라며 국내에서 밤낮으로 훈련을 해 키운 군부대의 장교를 실전에 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p> <p>이 대목까지 읽고서 나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감정을 느꼈다. 이 감정은 어떠한 기쁨, 슬픔 등의 그것도 아니었다. 아주 복잡한 '경의'라는 감정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의 덕목을 쌓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바로 '애국심'이었다. 다만, 그 애국심이 남들과는 다르게, 뼈 속 깊이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애국심이 없었다면 수 많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왜놈들에게 저항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을 계기로, 나는 내 인생을 성찰하고 돌아 보게 되었다. 과연 나는, 선생의 절반이라도 따라갔을까? 나의 인생이 진실로 떳떳한가? 질문들이 머릿 속을 뒤덮었다. 나는 또한 다짐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부끄러운 일, 즉 매국하는 일과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이다.</p> <p>백범 김구 선생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한 치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는 진짜 '성인'이 되고 싶다. 이 책에는 배울 것이 정말 많다. 이 점들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싶다. 나 또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 나로 하여금 이런 뜻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책은 아마도 이 백범일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다.</p> <p>백범김구 선생님은, 위대하다.</p>	

인천운서중학교	2024 교과연계	1학년 3반 7번	
♥즐거운 학교♥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이름	전유진

4. 제목	나의 삶의 계기를 선물해 주신 백범 김구 선생님
<p>한 나라의 밝은 미래는 과거 역사에 대한 철저한 되새김질을 통해 살아난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겪은 설움은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비참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치욕에 떨며 눈물짓던, 아픈 역사를 가던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일제의 만행을 겪은 기억은 사람들은 창자가 칼로 베이는 듯하고 말하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쏟아진다고 외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다. 1917년 3월 17일에 고작 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로 7,509명이 처참하게 학살당했다. 빼앗긴 나라를 찾고 자유를 원했을 뿐이었는데, 지금의 우리는 그 때의 현실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지만 숭고한 죽음에 대해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p> <p>3.1운동하면 기억되는 백범 김구선생님은 많은 업적들을 남기셨지만, 한국 민족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그는 일제 치하 당시 한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을 주장하며 국민의 독립 의지를 고취시켰다. 그러한 업적들을 통해 김구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그의 이름과 업적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p> <p>김구는 어릴적에 유별난 개구쟁이였다. 아버지의 좋은 손가락을 분질러 흰 손가락으로 만든 뒤 옻으로 바껴 먹고, 아버지의 돈을 몸에 칭칭 감고 떡을 사러 가다 들켜 아버지의 의해 빨랫줄에 묶여 들보에 매달려 매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마냥 철부지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 친척 어른이 양반만 쓸 수 있는 관을 머리에 쓰고 사돈을 맞이했다고 해서 근처 양반에게 관을 갈기갈기 찢긴 이야기를 듣고 억울하여 몹시 울며 과거시험을 결심한다. 먹고 살기도 바쁘던 시절에 여느 부모였다면 '그깟 양반 하나되어 무엇하나' 했을 법한데, 김구의 아버지는 생원을 모셔와 서당을 열어주었다는 일화는 '과거에도 교육을 중요시 했구나'라는 생각이든다. 또한 그는 최시형과 전봉준 아래에서 동학농민운동을하며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 즈음에 서글픈 소식이 들려왔다.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식이다. 그 소식에 울분에 찬 김구는 일본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본인 한명을 죽이고, 해루 감옥에 끌려갔다가, 다시 인천 감옥으로 옮겨져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김구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일본인 판사와 조선 관리들을 꾸짖었다. 그러한 그의 이로운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사 당일에 고종의 명으로 사설을 면하게 된다.</p> <p>그가 43세가 되던해인 1919년 3월1일에 대한민국 전역에 만세운동에 일어나 일본에 의한 감시가 심해져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김구 선생님과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덕분에 1945년에 광복을 맞이 할 수 있었다. 김구 선생님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우리가 이끌기 위해 수립한 한국광복군이 활동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지 못한 후유증은 나라 분단으로 이어져 지금 현재까지 많은 정치적 문제를 남기고 있어 아쉽다.</p> <p>이번 시간 동안 백범일지를 읽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나의 삶을 너무 허비하며 살아가서 부끄러웠다. 아직은 꿈과 목표는 없어 우선 공부를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몸이 동떨어져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또, 매일 같이 인생을 낭비하고 게으른 삶을 살던 나에게 선생님님께서서는 지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과 삶의 지혜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난 항상 잠을 자기 전에 항상 이런 말을 마음에 두고 잔다. 이렇게 살지 말자고. 내가 인생을 막 산 것에 대해 후회가 되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진 나는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인생을 열심히 살기로! 그냥 열심히 사는것이 아니라 공부로 열심히하고 지혜롭게 살고 24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 본다. 이러한 다짐은 조금 늦였겠지만 과거에 나보다 바뀐 내가 더 나는 삶을 살지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차근차근 나의 목표가 생일 때까지 달려보는 내가 진정한 나라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시간을 통해 아직 꿈이 없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이 '백범일지'를 소개 시켜주고 싶다. 그럼, 나처럼 꿈이 없는 아이들 꿈이 생기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아이들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p>	

인천운서중학교	2024 교과연계	1학년 4반 3번	
♥즐거운 학교♥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이름	김소은

5. 제목	독립을 위해, 독립을 위한 분께 존경심을 담아
<p>국어시간에 백범일지 독서록을 쓰기 위해 백범일지를 읽었습니다. 저의 김구 선생님에 대한 생각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역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년도와 사건을 알맞게 기억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범일지를 읽기 전까지도 흥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 중 독립운동을 했다는 극히 일부의 이야기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범일지를 읽고 난 뒤인 지금, 저는 백범일지를 읽고 김구 선생님을 더 잘 알게 되었기도 하지만 저 자신도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태어나서부터 애국심이 남다르신 분이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에 들어가 많은 신도를 이끄시기도 하셨습니다. 절에서 나오고 난 후에는 안 진사님의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정부 얘기, 정치 얘기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과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업적을 세웠다는 것이 현실같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또 주일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첫 학생들은 겨우 우리 학교의 한 반의 인원 수인 20명 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선생님이 부족하여 김구 선생님께서 교과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일본 경찰이 들이닥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알고 보니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안 김구 선생님은 자신이 그동안 밤에 아무 걱정 안 하고 잔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지금까지도 엄청 노력하시는데 여기서 더 후회하고 더 힘쓰시는 김구 선생님이 대단하시기도 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무슨 노력을 하는지 잘 생각나지 않아 반성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태까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오랫동안 꿈 꿔온 적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기에 그만큼 저도 더 후회하고 목표를 1개 정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p> <p>그리고 이봉창 의사, 안중근 의사, 이재명의사와 같이 대담한 업적을 이룬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다 자기 혼자 또는 몇 명이 모여 독립운동을 주도한 줄 알았는데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서로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p> <p>자신을 희생해 독립을 바랐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한 발 내딛으려는 때 일본에게 미국이 핵폭탄을 터뜨려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그 때 김구 선생님의 기분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되찾아 가쁜 마음이지만, 우리의 손으로 직접 독립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등이 복잡하게 얽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범일지를 보며 김구 선생님은 독립 생각만 하시던 나라에 헌신하시는 정말 필요한 인재이셨습니다. 항상 독립운동을 위해 힘쓰셔서 만약 그게 저라면 '몸이 100개라도 모자르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항상 모든 독립운동에 기둥이 되어주신 김구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책을 읽으며 들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는 정부, 독립, 투쟁, 학교, 교육, 정치, 꿈 등등 많겠지만 그 중 단연코 '독립'이라는 단어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원 모두 독립일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위인이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김구 선생님의 말 중 '태산이 쓰러져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독립에 대한 김구 선생님의 엄청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 같았습니다. 이런 대단한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도 나중에 누군가 제가 제 삶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고 물었을 때 부끄러움 없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고, 김구 선생님의 의지를 본받아 지금의 결심이 한 치 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p> <p>김구 선생님의 업적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p>	

인천운서중학교	2024 교과연계	1학년 5반 4번	
♥즐거운 학교♥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이름	김한별

6. 제목	청소년들을 위한 백범일지
<p>“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김구의 유명한 명언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흔히 명언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지혜나 용기가 될 수도, 문제의 해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명언이라는 것이 한 인물의 삶의 지혜를 한 문장에 압축해 놓은 것이므로 속에 담긴 지혜가 쉬이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저 그 인물에게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알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훨씬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명언의 참된 사용법이다. 백범일지를 읽음으로써 김구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고 그의 지혜와 의지를 엿볼 수 있으니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지적 자산이 아닐까 싶다. 책을 읽은 후 ‘백범 김구’라는 인물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죄송스럽게도 아직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못한 분위기에 모든 면에서 새롭게 다가올 테니 순수한 감상을 적을 수 있어 좋은 기회일 듯 하다.</p> <p>김구는 어린시절 훌륭한 스승을 찾아 다니며 학문을 깊이 깨우치고 애국심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원수인 왜놈을 직접 처단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조국을 향해 헌신하는 정신을 갖춘 영웅으로 불리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강한 애국심을 갖고 독립운동에 열중하였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지를 알아보고 그들의 독립운동을 도왔으며, 광복 이후에도 국민회의장으로 활동하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힘썼다.</p> <p>책을 모두 읽은 후 책을 읽었다는 느낌보다는 삶을 읽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책을 읽는 동안 계속해서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과 경외심이었다. 굴곡이 많고 설 틈이 없던 그의 삶을 읽으며 피로감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정작 책 속의 김구는 강인하고 묵묵한 모습으로 모든 상황들을 견디어 내고 있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버겁기만한 일생을 살며 이렇게나 많은 업적을 이루어 냈으니 그야말로 존경스러운 인물이라 느껴졌다. 책을 읽기 전 그저 역사적 위인으로만 느껴졌던 김구가 이렇게 단단하고 강인한 인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 대단히도 놀랍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다’는 표현이 한없이 낮설기만 했으나, 책을 읽는 동안 만큼은 그의 애국심을 온전히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다. 책을 읽는 도중 느꼈던 감정이 존경심과 같은 것이었다면, 책을 모두 읽은 후 느꼈던 감정은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이었다.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뼈저리게 느꼈다. 역사 속의 인물들은 모두 민족 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과거에 그렇게도 보존하고자 했던 정신들이 오늘날 하나하나 잊혀져가고 있다. 무관심이 불러올 재앙은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관심을 일관한다. 나조차도 역사에 대해 공부하기를 꺼리고 있으니 어느새 죄책감, 수치심 같은 감정들이 얽게나마 마음속에 깔려 있었다. 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무언가 실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쉬운 일이겠지만, 안타깝게도 보통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역사를 상기시킨다면 건강한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건강한 수치심은 타인을 시기, 질투 하지 않으며 가슴 한켠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우리를 발전하게 하고 역사를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준다. 김구 선생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평가하고 개발시킬 수 있어 기쁘다. 그러나 이조차도 청소년들을 위해 요약 해놓은 것이리라 기회가 된다면 백범일지 원본을 읽고 더욱 심오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인 김구의 시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책이다 보니 한국에 사는 청소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p>	

인천운서중학교	2024 교과연계	1학년 6반 3번	
♥즐거운 학교♥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이름	박찬서

7. 제목	백범일지
<p>이 책은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시대에 겪은 일들과 일제의 수 많은 만행들이 적혀 있는 책이다. 김구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독립할 때까지 우리나라가 해방될수 있도록 힘을 쓰며 노력했다. 하지만 독립의 기쁨도 잠시 한 나라에 38도선이 생기고 한 나라가 둘로 분단되었다. 이 일로 하나의 가정이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김구선생님은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하다가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되셨다.</p> <p>나는 이 백범일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김구선생님이 김창호이실 때 왜놈을 죽인 일이 기억에 남는다. 고작 21살이라는 나이에 그런 용감한 선택을 한 것이 정말 우리나라를 어렸을때부터 사랑하고 지키고 싶었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런 면에서 김구선생님이 참으로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과연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도 김구선생님과 같은 선택을 할까? 난 그러지 못할 것 같다. 난 단지 두렵다는 이유로 그러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도 분명히 두려워 할 것이다. 물론 김구 선생님도 그러실 수 있다. 하지만 김구선생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보다는 조국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에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다. 나는 김구 선생님의 이런 점을 본받아 조국이 위협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나가서 돕고 싶다.</p> <p>이 백범일지에서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일제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는 일제시대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 이렇게나 큰 아픔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은 독립운동을 해주신 감사한 분들 덕이라는 걸 더 깊이 알 수 있어 좋았다. 나는 읽기 전에는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의거는 윤봉길 의사께서 혼자 계획해서 하신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김구 선생님께서 함께 참여해 계획을 짰다는 것을 알고 조금 놀랐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한 가지 더 알게 되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에 쓰이는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구 선생님의 업적을 알면 알수록 김구 선생님을 향한 존경심의 점점 커지는 그런 분이시다. 만약 김구 선생님께서 안 계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부터 김구 선생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p> <p>백범일지 마지막에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다. "나는 나라 빼긴 마음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였다. 이 내용을 보고 나는 반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복수하려는 생각만 했는데 김구 선생님은 복수를 꿈꾸지 않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피해보았을 때 복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포용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p> <p>이 책은 여러모로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어 유익했다. 가는 이 책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김구 선생님과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노력, 그리고 또 다른 분단의 아픔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 안타까웠다. 다시 한번 김구 선생님 뿐만 아니라 독립 운동가분들 모두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책을 다른 청소년들도 꼭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p>	

인천운서중학교	2024 교과연계	2학년 1반 8번	
♥즐거운 학교♥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이름	황슬기

8. 제목	만세, 만세 독립의 나라
<p>내가 알고 있던 배경지식을 보태어 백범일지를 읽은 결과 내 머릿속은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내용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읽었고, 어느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다. 이 독서감상문은 내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준 백범일지에 대한 내용이다. 김구.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이 부분이 나의 혼란의 시발점이다. 김창수라는 어린아이는 생활 물건을 팔아 엽을 사먹는 장난꾸러기였다고 나온다. 나에게 있어서는 김구선생님의 어린시절도 아주 뛰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의 혼란들은 나의 편견이 가져온 것이었다. 김창수는 점점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어 가고 스무살이 되기 직전 김창수는 죽음을 마주하게 됐으나 죽음은 가까스로 김창수를 피해갔다 이 사건이 그 죽음을 마주하게된 일이다. 어느날, 김창수가 배를 타고 가던중 김창수가 타고 있던 배가 빙산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김창수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빙산에서 배를 밀어 빙산에서 배를 빼내었고 그곳에서 밥을 먹던중 일본인을 보게 된다. 김창수는 자신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와 사형 당할뻔 했다. 다행히 고종의 전화로 살아남아 징역만 받게된다. 김창수는 엄청난 징역을 받고 계속 버티다가 탈옥을 하게 된다. 그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의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독립에 한 마음이 커졌다고 한다. 25세에 김창수는 드디어 이름을 유완무의 건의로 이름을 '구' 로 바꾸게 된다. 12년정도 뒤에 37세에는 '구'자를 바꾸고 호를 백범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백범김구가 된 것이다. 도중에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를 쏘게 되어 김구도 감옥에 가는일이 생기게 되는데 어머머머한 양의 징역을 받게된다. 그리고 다시 감행한 탈옥! 탈옥후 부모님을 뵈어 이야기를 나누니 둘째딸 화경이가 세네달전 죽었던 소식을 듣게 된다.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슬펐다. 둘째딸 화경이의 죽음으로 김구가 절망한 마음보다는 화경이가 죽으며 한 말이 더 인상깊었던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알리면 자신의 아버지 맘 상할까봐 아버지를 보고 마음을 억누르고 끝까지 상처받을 자신의 아버지 마음을 걱정한 7살. 아직 어리광부릴 시기임에도 성숙한 화경이의 죽음이 너무 슬펐다.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일찍 죽고, 나라를 판 관리들은 계속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이 안타깝고, 화가 났다 그렇게 딸의 죽음을 듣고도 김구는 독립을 위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계속하게 된것도 신기했다. 나였다면 아버지와 자식의 죽음에 무너지고도 남았을텐데 김구는 엄청난 정신력으로 계속 독립을 위해 나아간부분을 영웅은 역시 다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면 김구 또한 슬펐으나 조국을 위한 마음이 더 커서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 김구는 1945년 8월 15일, 허무한 독립(일본인과 싸우지도 못한채 독립)에 대해 두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열심히 키운 군사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지도 못하였다는 아쉬움과 끝내 독립되었다는 안도감.“독립했으니 된거 아냐?”할 수도 있으나 피땀 흘리며 훈련하여 일본인을 모두 썩을 자르기 위해 이를 갈고 있던게 한번에 사라졌으니 짹짹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을 것이다 아마 나였어도 계속 걱정되고 마음 속에 이루 말하지 못할 응얼이가 남았을 것이다. 어쨌든 무사히 독립후 김구는 정식으로 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임시 정부를 세워 나라의 급한 일을 처리했다. 그 후 1948년 친한 지인 안두희의 배신으로 인해 죽은 김구는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는 위인이다. 김구가 자신의 생을 바쳐 이룬 독립의 나라, 한국, 하지만 한국또한 다른나라들처럼 많은 피와 땀, 눈물로 만들어진 나라이며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수십, 수천, 수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p>	

2024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화도진중학교	1학년 반 10 번 이름: 최서현
제목	독립운동가 김구선생님
<p>먼저 이 책을 읽고 김구선생님께서 독립운동에 얼마나 애쓰시고 힘 쓰셨는지를 알게하는 책이었습니다.</p> <p>김구선생님께서는 어릴적 글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김구선생님께서는 서당에 다니시면서 글을 공부하고 과거시험을 보셨는데 그 과거시험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관공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관공작에서 [얼른 졸은 것이 몸 졸은 것 못하고, 몸 졸은 것이 마음 졸은 것만 못하다] 라는 문구가 가장 인상 깊고 자주 생각이 나는 분이었습니다.</p> <p>그래서 이 글을 보신 김구선생님께서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p> <p>이처럼 이 글이 생각날 때마다 김구선생님을 떠올려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갖는 청산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생각하는데, 김구선생님께서 옆에서 밥을 먹던 일본인을 죽였을 겁니다. "그 사람이 명분황후를 죽인 자 맞을 거 같다"</p> <p>라고 생각하시고는 죽이신 것이었습니다. 김구선생님께서 사람을 죽였으니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러다 김구선생님께서는 탈옥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p> <p>이렇게 또 기억난 이 장면을 자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김구선생님께서는 정의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김구선생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또 무언가를 베푸는 그런 김구선생님을 떠올릴 때 마다</p>	

저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내 이익만 숭고한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권선쌤께서 마지막 내용 [한반도께서 네 소원을 들어준다면 무얼 말할거냐?]]

라고 나옵니다. 이때 김권선쌤께서는 첫번째는 독립이고 두번째도 독립이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김권선쌤께서 우리나라 독립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보였고 우리나라 독립을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권선쌤께서는 한반도의 독립의 꿈을 이루어 지기를 바라셨을텐데 그꿈을 이루시길 못하시고

간 강요상태의 그 무과 기분이 어떠셨는지를 알것같았습니다.

첫번째도 두번째도 독립이라 하셨던 김권선쌤, 만약, 몇분이 지나서 한반도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하늘에서 뵈게 되실때 김권선쌤께 다가가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었다고 말할것입니다.

그말을 들으면 김권선쌤께서 환하게 웃으실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권선쌤 그동안 독립운동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화도진중학교	1학년 4 반 15 번	이름: 박지우
제목	김구 선생님에게	
<p>나는 방학숙제로 백범일지를 읽었다, 솔직히 말해 재미 없음을 알고, 방학 3주동안은 백범일지를 읽지 않고 방치해 놓았다가 방학 끝 4기 2틀전에 다 읽었다. 신기한 것이 책이라고 해 봤다면 관련 책만 읽은 내가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다. 지금부터 내가 이 책을 어떤 흥미 로 읽었는지부터, 인상깊은 장면등 간단히 말해 이 책을 읽은 후기를 중심으로 감상문을 쓸 것이다.</p> <p>나는 이 책을 학교에서 왜 추천해 주었는지 부터 생각하며 읽었다 그 이유를 찾아 보니 1시간동안 100페이지를 읽게 되었다. 김구 선생님이 여러 독립운동들을 하며 옥살이를 많이 하였는데, 거의 모든 감옥이 인천에 있어서, 우리 지역과 연관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p> <p>그리고 다음부터 죽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김구 선생님이 일생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 관한것을 담고 있었다. 이 책으로 인해 생물학과 동물학이 아닌 역사쪽에도</p>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김구 선생님을 부러워 본받을 점도

많았다, 본받고 싶은 점은

첫번째, 나는 김구 선생에 용기를 배우고 싶다. 내가 제일 재미있게

읽은 장면인데 김구 선생님이 치하포에서 일본도를 가지고 있는

왜놈을 죽이는 장면에서 나는 나라면 우리나라를 위해 용기를

낼수있었을까라고 생각했다.

두번째, 애국심을 본받고 싶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애국심이 부족한것

같다. 다른나라의 경제나 세계사를 좋아하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움을 잘몰랐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는 독립운동가들

이 만들어준 이 나라를 사랑해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을 몰입하여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에 나오는 김구선생님

에 모습부터 여러 독립운동가 모습이 떠올랐다, 어찌면 우리나라를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면 나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알고

사랑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 분들께 한마디 하고싶다.

“감사합니다.”

2024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화도진중학교	1학년 4 반 4 번 이름: 김태희
제목	백범일지는..
'백범일지'는 자랑스러운 독립 운동가 김구 선생님이 쓰신 책이다.	
처음 이 책을 읽으려고 했을 때에는 책 두께도 두껍고 내용도 많아 별로 읽고 싶지는 않았지만 백범일지에 나오는 김구 선생님과 다른 독립운동가님들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내기엔 모쪼록 딱 없이 부족한 쪽 수였던 것 같다.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님과 다른 운동가님들이 우리나라를 독립 시키기 위해 일복과 투쟁을 벌인 내용이다. 백범일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독립운동가님들의 뜨거운 의지와 열정이 느껴져 한 쪽씩 넘길 때마다 항상 인상 깊었다. 그래도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김구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교육기관을 만들어 주신 것과 우리나라 정부가 사라져 혼란스러울 때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만들어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이끌어냈던 내용들이 가장 인상	

깊었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들은 읽었을 때 김구 선생님의
대단함과 엄청난 실행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였으면 독립을 원하지만 일본군들한테 겁을 피어 속대려끼
괴해 토끼굴에 숨어 있는 토끼처럼 벌벌 떨었을 텐데 용감하게
나서시는 김구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들끓기 시작했다.
나도 백범일지에 나온 김구 선생님과 다른 독립운동가분들,
그리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다른 독립운동가분들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행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극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24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화도진중학교	1학년 5반 2번 이름: 한민준
제목	'나의 소원은 대한독립!' 김구를 읽다
<p>나는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책 『백범일지』를 읽어보았다. 김구 선생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이번 『백범일지』 독후감에서 김구 선생의 주요 업적과, 김구 선생에 대해 내가 느낀 점, 이제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소개하는 것을 알리며 독후감을 시작하겠다. 먼저 김구 선생의 주요 업적에 대해 소개하겠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김구 선생이 우리 조국을 위해 힘쓰신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김구 선생은 1919년 대한제국 임시정부가 건설 되었을 당시 임시정부의 경무국장 직을 맡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다. 그 후로 대한민국이 독립되었을 때도 완전한 독립을 원하며 스스로 38선을 넘어 북으로 가신 대단한 독립운동가이다. 다음으로는 김구 선생에 대해 내가 느낀 점을 소개하겠다. 원래는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다.' 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그치만 이 책을 읽고난 이후에는 김구 선생이 쉽게</p>	

쉽게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란 걸 알았고,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위해 힘쓰신 김구 선생에게 많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또한 김구선생과 같은 독립운동가분들이 대한 독립을 위해 힘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 언어가 사라졌을 것이고 우리는 남의 나라에서 살며 매일 조국을 잃은 아픔을 느끼며 살아갔을 것이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모든 독립운동가분들을 우리가 잊어서 안되고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고, 매년 8월 15일에는 태극기를 펴서 기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소개하겠다. 나는 이제 항상 독립운동가분들 덕분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김구 선생과 모든 독립운동가분들을 기릴 것이다.

그 창혹했던 순간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나라만을 생각하며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신 김구 선생께 다시 한번 존경스러운 마음을 보낼 것이고 또 순간 대한 독립을 위해 힘쓰신 김구를 기억할 것이다.

2024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화도진중학교	1학년 2. 반 22번	이름: 최종윤
제목	내가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 『백범일지』	
<p>어느 하루였다. 나는 학교에서 추천해준 『백범일지』를 읽기 위해 책을 가지고 책상에 앉았다. 원래는 부모님이 추천해준 책도 겨우겨우 읽었는데, 너무 책을 읽었다 싶어 두 세달 만에 읽은 『백범일지』는 나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내가 어쩌다 읽은 책이 내게 문학적인 관심을 이끌어 주었다.</p> <p>이 책은 김구 선생님의 대한 이야기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어릴 때 글 공부를 하시다가 등학생민봉기에도 참여하신 뛰어난 분이셨다. 그런데 어느날, 왜놈 강고, 명병항후를 사해한 것에 많은 도움을 준 태종 강조를 죽이고, 감옥에 가셨다. 원래는 사형이셨는데, 왕께서 감지 사형 집행을 참피 주셨다 그 틈을 타 탈옥을 하셨지만, 방랑자 신세로, 승려생활 등을 하시는 일등을 거치신 후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임시정부는 목표를 위해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로 망명을 선택하신다. 그렇게 임시정부에서 나라를 위해 힘을 쏟은 결과로, 공복을 맞이하셨다. 그 해 11월에 한국으로 오시며, 임시정부를 다스리셨던 것 같이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하셨지만, 안두희의 흉에 맞아 시거하시며 이 책의 긴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p>		

마지막 쪽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읽어 보았다. 그 이야기에는
마리 아들에게 남긴 편지같이 진심 담겨 쓰신 말씀이 느껴졌다. 이렇
게 나라를 위해 일해하신 김구 선생님, 그리고 다른 많은 또 다른 우리 독립운동
가 선생님들이 정말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일해주셨
으니, 일이나 맞고 그 어느 사람이라도 본받고 싶은 신념을 가지신건지, 나는
기 책을 읽으며 김구선생님의 백범일기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 매우 다행
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전쟁이나 흠치 않은 이유로 사라졌다면, 이 멋진 이야
기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날 내가 이 백범일기를
읽은게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 멋진 이야기를 더 많이 보아서,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날들이 더욱 이득이 될 것이다. 난 앞으로도 다른 더 많은 독립운동
가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기억하며 독립운동가 분들이 정신을 배워야겠다.
정말 많은 교훈을 준 책이었다.

2024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화도진중학교	1학년	반 22번	이름: 홍지후
제목	나의 소원		
<p>저는 며칠 전 광복절을 맞아하여 상해 임시정부의 핵심인물인 김구선생님이 지은 백범일지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의 인물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체에 저항하신 분들은 매우 많지만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김구선생님에 대해 궁금해 하기 때문입니다. 백범김구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원래 이름은 김광암이었지만 훗날 김광수로 재명하신뒤 김구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백범김구 선생님은 총 세번이나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그중 한번은 치아포에서 밤을 드시다가 울에 갇을 순간 일본인을 보았습니다. 김구선생님은 그 일본인을 우리나라 조국인 명성황후를 살해했다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170엔 주먹으로 일본인을 죽였습니다. 알고보니 그 일본인은 육군중위 스기모로 명성황후를 죽인것이 맞았지만 김구선생님은 사형선고를 받으셨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고종이 한양-인천 장거리전화로 사형을 면할 수 있었지만 계속 감옥에 갇혀야 했던 김구선생님은 같이 갇혀 있던 죄수들의 도움으로 탈옥하였습니다. 탈출한뒤 김구선생님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러 별년후 조국의 독립을 맞이하시지만</p>			

우리민족의 슬로 어려번 독립이 아니라는 것에 큰 실망을 하실지,
그리고 별면후 자선적 복하의 권축에 맞고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이 책을 보면서 왜 김구선생님이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지주가 되
었지 알게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세번의 감옥 투옥과 특옥중 고문,
강제노역 등에도 불구하고 못뚫하게 위기를 극복하여 일제강점의
최고높은 자리인 국무장기 올라오실 정도면 책에서는 나와있지 않음
김구선생님의 성품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자선적 소원을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선적 독립이라고 하셨는데 조국의 독립
까지만 보고 자선적 독립은 보지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
민국은 외세의 간섭을 받지않고 그들과 동등한 위치가
되 앓을 정도로 강해졌다는 것을 보머르려고 싶습니다.

2024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화도진중학교	1학년 2 반 6 번 이름: 윤지은
제목	백범일지를 읽고 난 후의 느낀점
<p>나는 원래 역사에 대해 잘 몰랐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으니 조금이라도 잘 알게 됐고, 그 시대에 살았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김구 선생이 직접 쓴 글이라 더 잘 읽혀서 더 좋았다.</p> <p>근데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정도만 알았어서 대단한 점만 알고 있었는데 김구 선생도 어렸을 때 아버지 손가락을 찌고 바뀌었고, 아버지 돈을 훔쳐 떡을 사먹으려 하는 등의 행동은 말쑥을 자주 부러는 내 동생 같아서 주변사람과 비슷한 점도 찾을 수 있었다. 중간에 끝까지 힘을 다해서 싸우다가 지는 것은 나라가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지와, 한 나라의 민족이 나누어져 서로 싸우는 것은 더럽게 망하는 것 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 이 말을 읽고선 든 생각은 '나도 만약에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나의 책임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책임감있게, 그리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였다. 그리고 보다가 보면 김구 선생이 서대문 형무소에 이감 되었다고 나오는 데 좀 옛날이지만</p>	

몇년전에 서대문 형무소 박물관에 갔던 것이 떠올랐다. 그때가
잘은 기억안나지만 엄마한테 들었던 걸로 고문도 심했다고 했고,
그때 가봤을 때 기억은 ^{깨끗}어둡고 그때 그 시절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무서워서 금방 내려 왔었다. 그런데
백반말기를 입고 내이 요란만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가본다면 더 그때 상황에 이입해서 감상하고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책에서 고문을 할 때 어떻게 버티
다 보일 정도였다고 했는데, 그런 고문도 당하고, 더 심한 고문도
당해서 엄청 힘들었을 김구 선생을 포함한 모든 독립운동가 분들께
그분들이 희생해서 우리나라, 대한 민족을 지켜주셨기에 나와, 우리 모두가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 독립운동가 분들께 -

독립운동가 분들, 우리나라가 해방 된 것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텐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역사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의
일을 아주 정확히까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알아가고 항상 기억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저도 그런일이 생긴다면 파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윤서원 올림 -

2024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화도진중학교	1학년 5 반 1 번 이름: 경세린
제목	백범일지 감상문
<p>이 책은 백범김구의 일생과 업적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백범김구가 한 일을 몇가지 살펴보면 일본에 대항하기, 한글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한글 가르치기 등 수많은 업적들이 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일들에서 부끄럽거나 나쁜일은 거의 없다는 것에 나는 놀랐다. 나는 오히려 좋은일보다 나쁘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나니, 백범김구가 더욱 더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백범김구가 일본에 대항하와 그 평생을 마쳐 우리나라를 지켜냈을때 아! 백범김구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 필사히 대항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백범김구와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이제부터 나쁘고 부끄러운 일 말고 남에게 도움되고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다짐 했다.</p> <p>!!! 그리고 백범김구의 말을 되짚어 보면 나의 마음에 확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자신의 세가지 소원은 전후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다. 라는 말이 크게 인상깊었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항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테고,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의지를 더욱더 불태워 의지를 굳세게 만들어 의재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 나도 저렇게 되고싶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p>	

이책 덕분에 백명강구의 많은 업적과 대단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존경심도 더 커졌고, 백명강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책을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백명강구의 업적 등을 알았으면 좋겠다.

〈최우수상 수상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1학년 3반
 황석빈

‘백범 김구’라 하면 독립운동가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임시정부의 중심에 서 있던 이며, 자주독립과 문화가 강성한 나라를 그리던 이로 기억하고 있다. 그의 푸근한 인상과 임시정부를 세울 적의 업적을 보고 있자면 고상한 선비만 같아 보이며, 개구쟁이 어린 시절과 감옥에 드나들고 대뜸 승려가 되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걸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허나 그렇다고 결코 별 볼 일 없는 삶은 아니었을 테니 창암으로부터 백범 김구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였다.

‘백범일지’는 상권·하권·계속 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권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에서 본국에 있는 두 어린 아들에게 유서를 대신해 쓴 것으로, 유년 시절부터 임시정부가 세워질 적까지의 이야기로 김구의 과거를 담고 있다. 내 생각과는 달리 아주 파란만장한 길을 걸었으며 철저한 행동주의자로 적극적인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권은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적의 일을 기록하였고 계속 편은 그토록 그리던 광복과 그 유명한 ‘나의 소원’이 담겨있다.

백범일지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꼽으라 하면 서슴지 않고 ‘나의 소원’을 고를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파란만장한 삶에서 우러나온 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그토록 기다린 74년의 여정 속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그 의미도 깊다. 김구는 여기서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자주독립과 사랑·평화, 독재와 자유, 그리고 부강하지는 않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백범의 소원이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이며 가장 깊이 남는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가 점점 끝으로 갈수록 미묘한 씩씩함이 느껴졌다. 당시의 김구 선생은 몰랐을 테지만 우리는 이미 광복 이후의 이야기를, 그의 서거 이후의 이야기를, 그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에 씩씩함이 묻어났을 것이다. 하느님이 소원을 물으시거든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던 그의 소원이 무색하게도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은 지금까지도 대한은 아직 하나 되지 못하였으며 그 기미조차 너무 희미하다. 게다가 일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지 2년조차 되지 못해 강대국들에게 등 떠밀린 채 사변을 맞지 않았는가. 비록 백범 김구 선생의 서거는 그 이전이었지만 그의 소원과 너무나 먼 참상을 직접 마주했다면 그는 너무나 아파했을 것이다.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이 한창인 부분을 읽을 무렵에 우연히 백범일지와 비슷한 시기에 쓰인 시 몇 편을 접했다. 그 중 가장 마음에 남았던 시 세 편이 있는데, 김소월 시인의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과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다. 하나는 석양

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과 집 잃은 내용, 그리고 가늘은 희망을, 하나는 당신이 없어
인격 없는 거지가 되어, 생명 없는 이가 되어, 인권이 없는 이가 되어서 절망하던
때에 당신을 보았음을, 또 하나는 봄이 온 들판을 빼앗겼으니 곧 아름다운 봄마저
빼앗길 것임을 노래하며 결국엔 모두 김구 선생처럼 대한의 독립을 고요히 외치고
있다. 본래 시라는 것은 영혼을 짧디 짧은 글 몇 줄에 눌러 담아 슬픔과 한이 묻어
나오는 것인데, 이때 쓰인 시들은 유달리 그 농도가 깊고 진해 그것들이 그려낸 것
은 차디차지만 한편으로는 뜨거운 무언가가 있다. 대뜸 시 얘기를 꺼낸 것은 홀로
일어선 대한을 애타게 기다리는 김구 선생의 마음을 내비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 잃은 내 몸을 이고도 가늘은 빛을 찾아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일어서는 것. 이
것이 우리가 파란만장했던 백범 김구에게서 배울 점이다. 비록 완전한 자주독립은
되지 못하였지만 문화가 강성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한을 보았으니 이것이
위안이 되어 함께 산경을 김 매이던 새벽 동무들과 봄이 온 들을 맞이하길 바란다.

〈우수상 수상작〉

질문 두 개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1학년 3반
구담희

백범 김구의 자서전 <백범일지>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지며, 두 아들에게 전하는 유서를 시작으로 동학농민봉기, 의병부대, 세 번의 투옥과 옥중 생활을 지나 독립군 활동, 이후 광복과 통일문제를 적어내린 ‘나의 소원’이라는 소재목으로 마무리한다. <백범일지>는 김구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며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한국의 역사 속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백범 김구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상황, 주변 인물까지 함께 다룬다. 책은 과거의 위인과 대화하는 것, 또는 간접 체험의 가장 적합한 매개체라는 뜻의 말이 여럿 있다. 이처럼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그들의 삶을 대가로 투쟁,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역사적인 교훈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무엇 위에 올라왔는지, 삶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마무리하던 때인 ‘나의 소원’을 읽을 때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는 질문이다. 백범 김구를 포함한 모든 독립운동에 힘쓴 사람들까지 그들이 독립을 위해 포기한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 이들이 이러한 투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은 책을 다 읽고 한번 내용을 되새겨 볼 때 해결됐다. 나는 일제강점기를 살지 않았다. 또한 전쟁이나 분쟁 같은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은 일도, 굶으며 주변에 음식을 얻어먹을 정도로 궁핍을 겪은 적도 없고, 원한다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지 않았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SNS의 어느 곳에서 김구의 삶은 영웅의 서사와 닮아 있다고 표현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웅의 서사란 역경과 고난을 딛고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를 마주하며 성공이라는 결과와 그로 인해 서사를 듣고, 읽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흔하게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생활을 한 경험이 성공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와 비슷하게 그 시대 모두가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죽을 각오도 있는 동료 덕분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또한 질문이다. 나는 무엇이든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 자체가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달성하려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맛보는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잘하고 싶어진다. 백범 김구의 독립운동가로서 자신의 가장 큰 성취가 무엇이나 물어보면 주저없이 일본에 식민 지배에 맞서 독립을 위해 헌신했고, 그 결과 광복을 맞이했다고 말할 것이다. 자신의 동료들이 그저 한 번, 두 번 목소리를

냈던 것이 모두의 입을 열도록 도왔다는 것과 함께. 그럼 나는 물어보고 싶다. 성취하는 과정에서 가장 후회되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냐고. 나는 독립운동가로서의 김구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김구는 책 한 권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럼에도 내가 생각해본 대답은,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동료들이 다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던 것을 알면서도 잘 다녀와서 만나자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광복을 맞이했을 때,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져 무조건 항복을 외쳤을 때, 독립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은 정말 좋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연합국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의 간섭으로 또다시 주권을 빼앗길까 걱정했을 것이다. 하나의 일이 끝났을 때 진짜 끝이 아니라 이후의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러한 대답이라 유추해 본다.

책을 통해 살펴본 백범 김구에게는 두 가지를 배우고 싶다. 첫 번째는 희망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간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통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왕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나 역시도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성공이란 목표라든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다든지 하는 것들에 아주 작더라도 힘이 되지 않아도 마음이 닿기만 해도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이는 리더십과도 연결된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직 많이 어렵다.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자신감, 직접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도전정신이 정말 부럽다. 희망을 전하는 것과 용기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배우고 싶은 이유는 나는 아직 그것이 미숙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자서전은 한 사람의 삶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일상에서의 작고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를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깊이 생각해보면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이 책은 정말 흥미롭게 읽을 수 있고,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주는 책이었다. 한편으로 이와 비슷하게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을 다룬 내용의 다른 책을 읽으면 어떤 또 다른 생각이 들지 궁금해진다.

〈우수상 수상작〉

그가 바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1학년 3반
이서희

‘대한독립 만세!’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낸,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간절한 우리 선조들의 외침이다.

얼마 전 어느 영상 제작자가 만든 독립에 관련된 단편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 내용과 연출에 감탄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인 백범일지가 눈에 띄어 홀린 듯이 읽게 되었다.

그는 어째서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랐을까. 그 시작은 글 선생을 따라간 해주의 과거 시험장이 아닐까 싶다. 자신은 공부를 통해 지독한 가난을 해치고 장래를 개척하려 심혈을 다했지만, 온갖 무질서하고 부패가 난무하는 과거의 실태에 큰 불쾌감과 충격을 느낀다.

그는 강단 있는 성격과 실행력으로 어려서부터 여러 공부를 하였다. 관상 공부를 하던 중 깨달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자’ 를 가슴속에 새기고 동학을 접하였다. 그 마음으로 동학에서 활약하고, 고능선 선생을 만나 큰 깨우침을 얻고 유학길에서 돌아와 첫 번째 투옥 생활을 하게 된다.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에 대한 복수로 일본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 그 이유였다. 그는 첫 번째 투옥 생활 이후 본격적인 독립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독립활동 중에도 여러분의 옥살이와 주변인의 부고 등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다. 그러나 임시정부 시절에도 그의 노력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 임시정부의 중요 직책을 맡으며 그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외국 각지에 나가 있는 동포들에게도 그의 간절함이 닿아 더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도왔다.

그가 그토록 바랐던 독립을 마주했을 때 그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오히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감정이 들었다. 우리 동포들과 미국 등 여러 사람이 몇 년을 애써 준비한 참전을 위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고국의 땅을 떠난 지 27년, 그는 조국의 땅을 밟음과 동시에 그의 평생을 바친 조국의 독립을 보았다.

그의 삶은 의지와 열정, 그리고 좌절과 고난들로 가득했다. 그런 복잡한 감정들과 공존하며 평생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삶을 산 그가 더욱 존경스러워진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삶의 궤적이나 업적들을 알리려는 것이 아닌, 자신이 삶을 살며 먼저 깨달은 것들을 후대에 전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다. 비록 그가 원하던 조선의 완전한 자주적 독립을 볼 수 없었지만, 자신이 미리 겪어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김구의 마지막 소원이다.

책을 읽고 나서 기억 속에 가장 오래도록 남은 부분은 단연 ‘나의 소원’이다. 민족 국가 그의 소원에서 그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정치이념에서는 그의 자유를 향한 의지를 자세히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인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첫 문장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이다. 그는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닌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국민성이 높은 나라가 되기를 바랐다. 아주 나중에 김구 선생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그때 당신의 노력이 차곡차곡 모여, 이제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의 문화와 전통에 관심을 가지는 당신이 바라던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

내 나라가 남의 침략에 마음 아팠으니 그 아픔을 다른 이에게 넘길 필요 없다는 그의 생각은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생각인 것 같다. 자신의 힘든 일들을 어떻게든 헤쳐 나갈 생각보다, 남을 같이 힘든 상황으로 끌어내리려는 마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국민성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그런 나쁜 마음들이 들 때면 김구 선생의 말들을 새기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독립운동가의 책을 읽으며 그들의 생각을 본받고, 늘 감사하며 마음 한편에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

<장려상 수상작>

백범 일지와 독립운동가의 사명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1학년 3반
이현원

독립운동을 하셨던 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조국에 바쳤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다. 그들의 결단과 희생을 일으켰던 애국심은 어디서 비롯되었고 단순한 애국심 이상의 커다란 사명감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알고 싶었다. 또한 그들이 어떤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는지 궁금하였다. 「백범일지」를 통해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과 불굴의 의지를 이해하고 느껴보고 싶었다.

백범 김구의 가문은 신라의 마지막 군주였던 경순왕의 자손이며, 방계의 조상인 김자점이 역적으로 몰려 해주 백운방의 텃골에 자리를 잡았다. 1876년 김창암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개구쟁이로 지냈지만 학문도 꾸준히 익혔다. 그러나 과거 시험의 부정한 현장을 목격하고 과거를 포기했다. 이후 동학에 심취해 김창수로 개명하고 동학 접주로 활동했다. 동학 운동 실패 후, 안태훈 진사에게 의탁해 고능선의 가르침을 받았고, 중국 만주로 건너가 의병에도 참여하며 경험을 쌓았다. 이때 고능선이 김구에게 가르친 과단성이 그의 인생에 기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무리 명석하게 잘 판단하였더라도 실행의 원동력인 과단성이 없으면 다 쓸데없다며, “가지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이 그다지 대단할 것은 없다.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을 수 있어야 장부라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강조하였다. 이 책의 주제나 교훈은 아닐지라도 나에게서는 정문일침이었다. 익숙한 일은 막힘없이 수행하지만 새로운 것은 쉬이 시도해보지 못하고 걱정만 하는 나에게 이 구절은 나무를 오르기만 해서는 내려가는 법은 배우지 못하니 과감하게 떨어지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를 본받아 이제부터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경험으로 생각하며 인생의 양분으로 삼아야겠다. 1896년,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단발령이 전국적으로 선포되었다. 김구는 치하포에서 칼을 찬 일본인을 보고 명성황후를 죽인 범인 또는 그의 공범이라고 추측해 그를 살해했다. 이로 인해 인천 감옥에 투옥되었으나 고종의 명령으로 사형이 중지되었고, 1898년 탈옥했다. 이후 마곡사에서 승려 생활을 하다가 예수교를 믿기로 결심하고 최준례와 혼인했다. 을사늑약 반대 구국 운동에서 연설을 하였고, 황해도의 양산학교 교사로 교육활동을 했다. 신민회 회원으로 참여하던 중 안악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 책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치하포 의거로 김구의 첫 번째 투옥 생활이 시작했을 때였다. 제 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신문에서도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한 명을 때려 죽였다는 발언을 하며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드러내는 모습에 압도되었다. 고능선 선생님을 뵈고 가르침을 청할 때 그의 인간미를 볼 수 있었다면 이 순간이 바로 진

정한 독립운동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읽으며 얼마 전 기어 들어 가는 목소리로 칠판에서 수학 문제를 풀면 내 모습이 떠올랐다. 큰소리로 호령하던 김구 선생님의 모습을 배워 내 의견을 또박또박 말하는 능력을 길러야겠다고 다짐했다. 출옥 후, 1919년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청했고, 안창호의 추천으로 경무국장이 되었다. 정보감찰, 경찰, 밀정 색출 업무를 맡았으며, 1923년 내무총장에 임명되었다. 1926년 이동녕의 권유로 국무령이 되었고, 내각제로 전환된 뒤 한인애국단장이 되어 이봉창, 윤봉길과의 일화를 남겼다. 임시정부는 일본의 박해를 피해 중경에 정착했고, 장제스와 동맹을 맺으며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임정 주석으로서 광복군을 창설했으나, 일본의 조기 항복으로 독립운동의 꿈은 허사가 되었다. 해방 후, 김구는 고국으로 귀환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과거를 회고했다.

이 책을 읽은 후 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투철한 독립정신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고, 그와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는 신분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행패를 부리던 양반들에게 굴하지 않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았고, 부정부패로 가득한 과거 시험의 현장을 보고 차라리 상놈으로 남겠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구조에서 신분과 재산으로 나뉘는 위치 따위는 그저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는 사람들의 껍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약자를 돕는, 인의를 가꾸는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김구 선생님은 일본의 지배가 민족을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신념을 좇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나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백범일지」는 김구의 일생을 담은 책이며 그의 시선으로 본 사건들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의 사견이 들어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자서전이나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담긴 책을 보고 「백범일지」와 대비하여 읽어보아야겠다.

〈장려상 수상작〉

이름의 의미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1학년 4반

조예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김구 선생이 쓴 <백범일지>라는 책을 읽고, 나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떠올랐다. 중학교 때 감지를 쓰면서까지 열심히 외워서인가 싶었지만 그것보다는 <백범일지>에 김구 선생이 일일이 밝혀 놓으신 이름 때문인 것 같다. 독립운동가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며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기에 기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다.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안창호 등,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존재의 무거움을 역사 속에 새긴 분들 외에도, 존재감 없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스러져간 애국자들을 김구 선생이 빠짐없이 기록하고 알리려고 한 노력이 느껴졌다.

백범 김구 자서전 <백범일지>는 대한민국 11년 5월 3일 중국 상해에서 인과 신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시작되어 출생과 청년 시절 일화, 동학농민운동을 했던 일, 임시정부의 망명과 광복군 창설, 일제의 항복과 조국으로 돌아온 이야기, 나의 소원까지 많은 이야기를 싣고 있다. 줄거리로 요약하기엔 참으로 자세하고 방대한 이야기이다. 먼 나라에 떨어져 살아 말로 해 줄 수 없기에 쓴 편지는 따뜻한 대화로 자식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여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 “너희들이 다 자란 후에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미래 이기에 글을 쓴다.” 라는 문장은 두 아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그리움이 묻어난다.

그는 집안 어른 중에 한 분이 사돈에게 인사를 갈 때 말총 갓을 쓰고 갔다가 양반들에게 발각되어 혼이 난 이야기를 듣고 양반이 되려 공부를 했다. 그러나 돈만 많으면 과거도 벼슬도 할 수 있는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길을 생각하기로 한다. 그렇게 공부하게 된 <상서>의 관상학을 기준으로 자신의 관심을 관찰하던 중 얼굴에 천격, 빈격, 흉격이 있는 것을 알고 심한 비관에 빠져 지내다가 18세에 빈부귀천에 차별대우가 없다는 동학을 접하게 되어 입도하게 된다. 이때 그는 창암이라는 아명을 버리고 창수라는 이름을 쓴다. 하지만 같은 동학군이던 이동엽의 공격으로 동학군이 분열되어 결국 소탕되고 만다. 반봉건적, 반외세적 성격의 동학농민운동의 실상은 내부분열로 인한 실패였다는 사실이 속상하게 다가왔다.

김구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경무국장이 되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임명되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했다고 한다. 한형권이 러시아에 가서 레닌을 만나 경제적 지원금 40만 루블을 받았으나 이동휘가 김립을 시켜 빼들었다. 김립은 임시정부에 돈을 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돈을 낭비했다. 이에 이동휘는 입장이 곤란해지자 러시아로 도주했다. 한형권은 다시 러시아에 가서 통일운동을 한다고 20만 루블을 받고, 공산당들에게 돈을 주고 국민대표대회를 소집했다. 한인 공산당이

세파로 나뉘어 분열된 기록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졌다. 위기에 하나로 뭉쳐도 모자를 판에 자신의 이해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나보다 더 답답했을 김구 선생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그럼에도 하와이, 미주, 멕시코, 쿠바 동포들은 독립성금을 보냈다고 하니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든다.

한인 이봉창의 일황 저격 사건을 중국의 국민당 기관지가 “한인 이봉창 일황 저격, 불행히도 빗나가” 라고 신문에 실은 이유로 신문사가 폐쇄되고 상해 1.28 사건을 일으켰다는 사건을 보며, 망국의 서러움을 함께 한 중국이 지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나랏일에는 영원한 우방이 없다는 말이 새삼 이해가 되었다. 또 윤봉길 의거가 ‘도시락 폭탄’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당시 물병 1개와 점심도시락, 국기 하나씩을 가지고 입장하는 행사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가 시계를 맞바꾸는 장면은 그때의 비장함이 느껴져 뭉클했다.

<백범일지>를 읽다 보면 김구 선생이 사람 이름을 일일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임시정부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식구로 여겨 대가족이라 부르고, 그들을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대가족 명부를 작성하였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꽃>이라는 시처럼 가치와 본질을 알아줄 때, 특별한 존재가 됨을 뜻하는 것이다.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말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읽어보았는데, 역시 호국보훈의 달에 걸맞은 좋은 책인 것 같다.

〈장려상 수상작〉

백범白凡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찬

김구 선생님은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에서 탄생을 알리셨다. 글을 좋아하던 김구 선생은 17세에 과거를 보았으나 낙방하여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셨다. 이후 19세에 선봉장이 되어 동학 혁명에도 참여하여 고능선 선생을 만나 ‘충의’를 배우셨다. 21세 황해도 치하포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변장한 일본군 중위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사형을 받았으나 고종의 명으로 형이 정지되었다. 일본인들의 참견으로 석방이 미뤄지자 탈옥하여 중이 되셨다. 25세 이후 좋은 나라는 바른 교육에서 나온다 하여 교육 사업에 전념하시고, 이후 36세 독립운동으로 17년형을 받으셨지만 5년만에 감옥에서 나오셨다. 1919년 중국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 청사 문지기를 자진하셨던 김구 선생님의 나이 44세, 이후 52세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이 되셨고 56세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의거에 힘을 쏟고 이끄셨다. 65세 한국 광복군을 만드시고 1945년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임시정부를 지키셨다. 1945년 김구 선생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셨다. 그때 우리나라는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군이 다스리고 있었고, 나라는 계속 힘들어지고 있었다.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자는 사람과 민주주의를 세우자는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김구 선생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북의 지도자를 만나기도 했지만 통일 정부를 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통일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암살당하시고 1949년 6월 26일 향년 72세 나이에 모두에게 기억될 위인이 되셨다.

백범일지는 고 김구 선생님의 생애를 스스로 정리하신 책으로, 그가 얼마나 생전 치열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었다. 대중적으로 김구 선생님은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헌신한 애국자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김구 선생님은 의외로 논란이 있는 편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적잖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김구 선생님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임시정부를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른 독립운동가는 자신의 처지나 이념에 따라서 임시정부를 해산하려고 시도하거나 떠난 후 돌아온 것에서 비해 김구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킨 독립운동가로 그 자체로 정통성이 매우 높고, 조금 과장을 보탠다면 임시정부의 정통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구 선생은 독립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으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대한 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독립에 진심이셨다. 김구의 호인 “백범(白凡)”은 백정 같은 범인들도 독립을 위해 나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알려져 있다. 책을 보며 나는 물론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커졌음은 물론, 감히 김구 선생

님의 노고를 언급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부모가 장애인이 되고 본인은 끝없는 옥살이를 당해도 조국의 애국심을 버리지 않고 친일파의 권력의 유혹을 애국심으로 이겨내는 김구 선생님의 삶과 인생을 감히 우리가 어떤 잣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조금 자세하게 치하포에서 생긴 일을 적어 보고자 한다. 김구 선생님이 동학농민운동을 지휘하다 일본군에게 쫓겨 1895년 만주로 피신하였다가 이듬해 귀국하여 안악으로 돌아가던 길, 치하포에서 머무르다가 일본인 쓰치다가 조선인으로 변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강에 버렸다. 이런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훗날 임시정부를 통솔할 남자의 결단력, 실행력은 가히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주인 것 같다. 이후 김구 선생님은 신탁통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신탁통치를 강하게 반대하였다. 나는 이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다. 김구 선생님은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 통치하면 훗날 미래에는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어 전쟁까지도 불사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셨다. 이는 너무나 현명하고 선구적이었으며, 결국 현대사회를 보면 남(민주주의)-북(공산주의)으로 나뉘어 한 민족이 적대적인 관계에 이르는 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를 예상해 통일 정부를 위해 노력하시던 모습이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으며, 나는 글을 읽는 내내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다. 후에도 김구 선생님을 알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백범일지를 읽으며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준 모든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모두가 잊어도 나만은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약속했다.

<장려상 수상작>

백범 김구의 리더십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2학년 3반

김 철

백범 김구의 존함을 들어보지 못한 한국인은 없는 것처럼 나 또한 김구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다는 사실만을 알뿐이지 자세히는 알지 못했었다. 5~6월쯤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공부하던 중 한 번쯤은 김구, 안중근, 윤봉길 등에 대한 자서전을 읽어보자고 생각했었고, 그러다 우연히 선생님의 권유로 방학 동안 ‘백범일지’를 읽게 되었다.

‘백범일지’는 독립운동가 김구의 자서전이다. 김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 평생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해치자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인을 죽여서 감옥에 가기도 하였고,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자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도 김구와 그의 동지들이다.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일본의 항복 소식과 함께 김구는 조국으로 귀환하고, 지방을 순회하였다.

이 책은 백범의 일생을 다루면서 그의 가치관과 인간성, 덕목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역사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백범이 삶의 여러 순간에 함께했던 동지들은 물론이고 후세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존경받는 이유를 그의 리더십과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백범의 리더십에는 타고난 진정성이라는 특별함이 있고 그로 인해 그와 만남의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백범을 지도자로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동학군의 접주를 역임할 당시 그의 행동이 아주 인상 깊었다. 백범은 자신이 나이는 어리지만 병법을 연구하는 등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접주로 임명되었다고 회고하는 한편, 상부의 결정 이면에는 자신들이 총알받이가 되기 싫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백범일지’에 기록하였다. 이 말은 자신이 총알받이가 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상부의 결정을 신뢰하고 따랐다는 뜻이다. 김구는 억울할 법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불평하지 않았으며, 그가 타인을 신뢰한 만큼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결국 자신이 이끄는 부대를 가장 우수한 부대로 만들어 내기도 했다. 김구는 리더로서 쉽게 불평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일을 성실히 임하여 아래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내는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중 한국광복군 창설에 기여한 헌신적인 리더십도 매우 인상 깊었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중국 국민당 정부에 한국광복군 창설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김구는 이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설득에 들어갔다. [한국광복군 조직 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민당 주석 장개석에

게 제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결국 김구의 성실성과 간절한 노력 끝에 장개석의 허가를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김구가 성사시킨 한국광복군의 창설은 이후 독립운동에 큰 보탬이 되었고,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입증시키는 큰 힘이 되었다. 김구는 이러한 일화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헌신적인 리더십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리더십은 단지 다수의 앞에서 길을 찾아내 이끌어 주는 지도자의 막연한 이미지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김구의 책을 읽으면서 용기, 포용, 헌신, 진정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리더십을 이룬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한 학교의 학생회장으로서 이 리더십을 꼭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러 사람의 지지를 얻어 학생회장이 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헌신적인 자세를 갖추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백범 김구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김구의 리더십과 인간관계가 돋보인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가 배경이 된 만큼 앞서 말했듯이 김구가 만났던 안중근과 윤봉길에 대한 자서전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을 읽고 난 후 그 의지가 확고해졌다.

겨울방학쯤에는 안중근과 윤봉길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책을 더 읽어보고 싶다.

<장려상 수상작>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것은 아니다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2학년 3반

송예찬

방학 시작 전 한 권의 책을 받게 됐다. 제목을 보는 순간 마음 한 켠이 움직였다. ‘백범일지’ 독립운동과 백범 김구의 자서전이였다. 우리의 역사를 몸소 느끼셨던 분이였기에 정중한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됐다. 처음에는 즐거리를 쉽게 파악하고자 오디오북으로 시작했다. 들어보니 정말로 말로 답변할 수 없을 만큼의 애국심을 지닌 존경스러운 분이였다. 이 오디오북은 마치 한편의 예고편으로 다가옴으로써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로 이 독후감의 시작을 알리고자 한다. 이 책에 중심 줄거리라 하면 제목을 봐도 바로 유추 할 수 있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펼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읽기 전에 한 일말의 추측이었고, 책을 읽은 후라면 이런 일대기를 더욱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53세인 나이에 자신이 출생한 시점을 시작으로 젊은 시절에 있었던 여러 사건과 투옥 생활 및 숨을 거둘 때까지 몸담아왔던 애국 운동을 돌아보는 것을 포함하여, 조국을 향한 애국심, 민족을 향한 무궁한 민족애, 자신이 바라 온 나라(대한민국) 및 소망 등을 다루고 있다.

책의 줄거리는 이 정도로 뒤로 하고, 이 책에는 정말로 수 없는 자긍심과 용기, 근성 여러 가지를 담고 있었지만 가장 인상깊은 부분을 꼽아 보라 한다면 비교적 초반부인 김구 선생과 고능선 선생의 대화가 나온 부분을 선택하고 싶다. 고능선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고로 나라는 흥한 나라 없고 망해 본 나라가 없다.” 정말로 고능선 선생의 말을 읊으면서 또 곱씹어 보면서 여러 생각에 빠지게 했다. 당시 상황을 대입해 보면 그는 개인적으로 삶의 견문력을 넓혀 지혜를 얻은 분이라 말하고 싶다. 당시 시대 전형을 살펴보면 청이 침략하여 전세가 크게 기울어진 때였다. 되려 우리나라는 왜의 침략, 원의 침략, 거란의 침략, 당 등 여러 침략 속에 항상 위기 속에서 위기를 겪어왔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런 역경을 뿌리쳐 나왔다. 여기서 나는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장애물, 역경은 있었으나 망한 적은 없다. 고능선 선생과 생각을 맞춰 보면 딱 맞아떨어진다. 감히 나의 생각을 담아 해석해 보면 ‘어떤 상황이던 흥(성공) 속에 흐름을 타더라도 결국 도태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한들 끝은 패망(실패)은 없으며 어려움이 닦쳐온다.’ 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역설적으로 어떤 사회든 흥과 망 둘 모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인상깊었던 부분으로 적어 보려 한다.

다음으로 이 책을 읽으며, 어쩌면 가장 신중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교훈이 또 있다. 바로 내가 생각한 교훈은 이 독후감의 제목이기도 한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다. 여기서 중점을 둔 키포인트는 ‘해방(독립)’ 이었다. 자고로 일

제시대는 우리 역사 속 암흑기였다. 돌아갈 수 없이 깊어져만 가는 밤이었다. 독립이라는 단어는 일제라는 밤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허나 가려진 것이지 독립의 소망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 애국선열들은 독립의 소망을 가슴 한켠에 품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또 서로를, 동지들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할 나라, 독립 해방을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국 독립이라는 여명으로 역사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다고 무조건 좌절하지 않고 없는 건 아니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다.

다만 우리는 아직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진정한 ‘자주 독립’을 아직도 이루지 못하였다. 솔직히 이 독후감을 쓰는 순간에도 우리의 역사는 왜곡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독립기념관장부터도 현실에 외람된 말을 펴두로 하고 있다. 이것을 통하여 옳지 못한 정의는 왜곡된 현실에 가려짐으로써 영원한 심연에 빠뜨림을 깨닫게 했다. 우리는 이 자서전을 통해서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여 김구 선생의 그토록 영원하던 진정한 ‘독립’의 소망을 이루고픈 민족애를 배우게 됐다.

또한 이 글을 통하여 내 상황을 연관 지어 보고자 한다. 나는 항상 앞면만 바라보면서 살아와서 뒷면, 즉 보이지 않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책의 ‘독립’ 처럼,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본받으려 한다. 이를 통해 나는 김구 선생의 염원 ‘자주 독립’을 위해 오른 정의관을 가지고 독서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현실을 빛으로 밝혀 주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바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 힘쓰신 애국 선열 및 이 책의 저자이신 김구 선생님께 감히 경의를 표하며, 이 부족한 글을 바칩니다.